

삼성전자 2025년 4분기 잠정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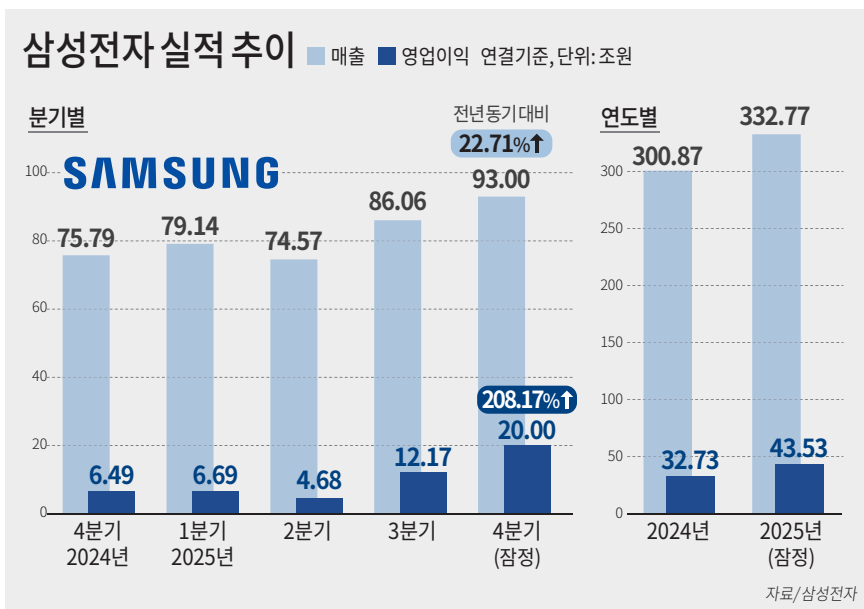
D램·HBM 등 반도체 사업 질주… 1분기 실적 신기록 기대

글로벌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
증권가 연간 영업이익 123조 추정
“기술개선 노력이 결실 보고 있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올해도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챗GPT 등장에 따른 인공지능(AI) 열풍이 불어오면서 시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덕분에 2024년 하반기부터 범용 D램 가격은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며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본격화됐다. 최근에는 반도체 사업에 유례없는 ‘초강세장’이 열리며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은 1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범용



D램 가격은 지난해 4분기(38~43%)를 넘어선 50~60%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까지 대

세로 자리잡을 HBM3E(5세대)는 브로드컴, AMD, 구글,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HBM4는 2분기부터 엔비디아 루빈(Rubin)형 공급이 예상된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도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지난해 7월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 공급 계약을 맺은 데 이어, AMD의 2나노(nm) 칩 수주도 목전에 두고 있다. 또 퀄컴의 수주 복귀도 기대되는 부분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D램 흥행으로 또다시 최대 실적을 갈아 치울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에도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인 HBM4 효과로 최대 실적 경신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의 HBM4는 첨단 노드인 10나노급 6세대(1c) 공정과 파운드리 4나

노 기반 로직 공정을 도입하며 고객이 요구하는 속도와 발열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며,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

KB증권은 지난 7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2026년 삼성전자의 분기 평균 영업이익을 31조원, 연간 영업이익은 123조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25년 분기 평균 영업이익 11조 원 대비 약 3배 수준으로, 하반기에는 분기 평균 3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구 카운터포인트리서치 연구원은 “단기성과에 급급했던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술 개선에 노력한 것이 결실을 보고 있다”며 “2026년 실적에 대한 시장 기대치도 지금보다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승부수… 신규수주 속도낸다

글로벌 기업, 파운드리 이원화 흐름
기회요인 작용… 흑자전환 가능성

글로벌 반도체 제조 기업들이 파운드리 이원화 전략을 확대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에서 분기 매출 90조원을 넘긴 가운데,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 역시 적자 폭을 줄이며 수익성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기업인 미국 퀄컴이 차세대 AP생산을 두고 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와 최신 2n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22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내 첨단 복합 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인 NRD-K 클린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나노미터·10억분의 1m) 공정을 활용한 위탁생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이 최종 성사될 경우 삼성은 지

난 2022년 이후 끊긴 퀄컴의 최첨단 제품 생산을 5년 만에 재개하게 된다. 퀄컴은 지난 2021년까지 삼성 파운드리에 최첨단 AP생산을 맡겼으나 이후 대만 TSMC로 거래처를 옮긴 바 있다. 업계에서는 퀄컴이 이번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다시 생산을 맡기려는 배경으로, 지난해 7월 삼성이 테슬라로부터 165억달러(약 24조원)에 이르는 차세대 인공지능 칩 ‘AI6’ 생산을 수주하며 기술 신뢰도를 높인 점을 꼽고 있다.

또한 AMD의 2nm 칩 수주를 앞둔 점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거론된다. 아울러 최근 AMD가 차세대 GPU 로드맵을 공개한 가운데 멀티 파운드리 전략을 유지하며 생산처를 다

변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따른다.

특히 2nm 공정에서는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게이트웨이라운드(GAA) 구조를 앞세워 조기 양산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수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방문 중 리사 수 AMD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해당 관측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오는 2월 공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 ‘엑시노스 2600’도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최근 2나노 수율이 상당히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내부 고객인 엑시노스 2600 물량에 더해 북미 고객을 중심으로 파운드리 추가 수주가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에 그동안 대규모 투자 부담과 낮은 가동률로 적자가 이어져 ‘아픈 손가락’으로 꼽혀온 파운드리 사업이 올해는 손익분기점을 넘어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오는 모습이다. 메모리 중심의 실적 회복에 비메모리 개선이 더해질 경우 반도체 사업 전반의 체질 개선 효과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분석도 따른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2나노 공정 고객이 추가될 경우, 이를 계기로 빅테크 고객사 저변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최선단 공정에서의 기술 신뢰도를 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韓 소비 회복에 완만한 성장세… 건설·제조업 부진은 부담

KDI ‘1월 경제동향’

서비스업·금융·보험 등 생산 증가

소비 회복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이 국책연구기관에서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에서 “건설업 부진이 지속되고 제조업도 다소 조정되고 있으나, 소비 개선으로 완만한 생산 증가세가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 보고서는 “소매판매액이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서비스업 생산도 회복세를 나타내는 등 소비 개선 흐름은 지속되고 있다”고 했다. 또 “소비자심리지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비제조업 기업의 심리지수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침체가 지속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생

산은 여전히 미약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11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0.3% 증가하며 전월(-3.7%)의 감소세에서 벗어났다. 조업일수 감소 폭이 2일에서 1일로 축소된 가운데 서비스업의 개선 흐름이 이어진 영향이다.

계절조정 기준 전월 대비로는 0.9% 증가했지만 전월의 감소(-2.7%)를 일부 만회하는 데 그쳤다는 점에서 생산 증가세는 여전히 완만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부문별로 보면 서비스업생산(3.0%)이 도소매(4.2%), 금융·보험(4.2%), 보건·사회복지(6.2%) 등 대다수 부문에서 회복세를 나타내며 전산업생산 증가세를 견인했다.

건설업생산은 17.0% 감소하며 부진을 지속했다. 광공업생산도 1.4% 감소했는데, 반도체(-1.5%)와 자동차(-0.2%)가 조정 국면에 들어선 데다 화학제

품(-5.0%)과 1차금속(-6.8%)의 부진이 이어진 영향이 컸다.

반도체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는 39.2%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지만, 이는 수출물량 증가(4.9%)보다 수출가격 상승(32.7%)의 기여도가 훨씬 컸다. 물량 기준인 반도체 생산이 조정 국면에 들어선 것으로 KDI는 분석했다.

소비는 2차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마무리되면서 정책 효과는 다소 약화됐지만, 완만한 개선세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쿠폰 효과가 직접 작용하던 식료품·소모품 등 준내구재(1.0%→-1.5%)와 의류·생활잡화 등 비내구재(1.9%→-0.2%)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승용차(-9.3%→-5.4%) 등 내구재(-3.8%→-4.1%)를 중심으로 소매판매액(0.4%→0.8%)은 개선 흐름을 이어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자금 흐름 온도차… 가계 ‘저축’·기업 ‘투자’

한은 2025년 3분기 자금순환

2025년 3분기 가계의 순자금운용(여윗돈)이 58조원으로 전분기보다 7조원 늘어난 반면, 비금융법인인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 영향으로 19조5000억원 순자금조달로 돌아서며 자금수요가 커졌다. 국내부문 전체 순자금운용은 46조3000억원으로 확대됐고, 일반정부는 5조9000억원 순운용으로 전환했다. 순자금운용액은 각 경제주체의 해당 기간 자금운용액에서 자금 조달액을 뺀 값이다.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에 따르면 3분기 국내부문의 자금운용·조달 차액(순자금운용)은 4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41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부문별로는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순자금운용이 58조원으로 2분기(51조3000억원) 대비 늘었다. 자금운용(금융자산 거래)은 78조8000억원으로 소폭 확대됐

는데, 금융기관 예치금 중심으로 증가한 결과다. 반면 자금조달(금융부채 거래)은 20조7000억원으로 줄었고, 금융기관 차입 축소가 영향을 미쳤다.

비금융법인인 순자금조달이 -3조5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한은은 설비투자 등 투자 확대에 따라 자금조달 수요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설명했다. 실제 조달 측면에서는 채권발행 등 직접금융이 축소됐지만, 금융기관 차입금 증가폭이 확대되고 상거래신용부채가 증가 전환하면서 자금조달 규모가 3분기 10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일반정부는 3분기 순자금운용 5조9000억원을 기록해 전분기 순자금조달(-2조7000억원)에서 순운용으로 전환했다. 자료는 지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입 등을 전환 배경으로 제시했다.

국외부문은 3분기 순자금조달 규모가 -46조3000억원으로 전분기(-41조5000억원)보다 확대됐다. /김주형 기자 gh471@

“설계·공정 전부 바꾼다”… HD현대, ‘디지털 조선소’ 속도

선박 구조·시스템, 가상 환경서 검증
설계 변경·공정 충돌 사전 차단 초점
지멘스 디지털트윈 결합 전 과정 연결
생산효율·의사결정 정확도 동시 제고
미국 조선 협력서 핵심 경쟁력 부상

HD현대가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본격화하며 설계와 공정 관리 방식 전반에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전통적인 조선 설계 체계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겠다는 방향성이 제시되면서 글로벌 조선업의 운영 구조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8일 업계에 따르면 HD현대는 선박 설계와 공정 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선박 구조와 시스템을 디지털 환경에서 구현해 설계 단계에서 검증하고, 공정 간 연계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전환은 조선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설계 변경과 공정 변수를 사전에 점검하고, 의사결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기반으로 평가된다. 복잡한 선박 구조와 다단계 공정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업 특성상, 설계와 생산을 연결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인도한 초대형 LNG 운반선.

설계와 공정 전반을 디지털 기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HD현대는 조선소 운영 체계 자체를 고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HD현대는 지난해 11월 독일 엔지니어링 기업 지멘스와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미국 조선업 현대화와 조선소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조선 설계와 공정 관리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본격 적용하고 있다.

HD현대는 선박 건조와 조선소 운영 과정에서 축적해 온 노하우에 지멘스의 디지털 트윈과 산업용 소프트웨어를 결

합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전 과정을 하나의 디지털 흐름으로 연결하고 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영향과 공정 간 충돌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제 건조 이전에 생산 흐름을 미리 검증함으로써 공정 안정성과 운영 효율을 동시에 높일 것이라는 구상이다.

HD현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조선업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기술 기업들의 공개 발언에서도 대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조선업의 디지털 트윈 적용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HD현대중공업

사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HD현대를 언급하며 선박 전체를 디지털 트윈으로 구현해 볼트와 너트 단위까지 반영한 구조를 통해 설계와 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단순한 설계 3D 모델링(CAD)를 넘어 컴퓨팅과 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까지 하나의 디지털 트윈 안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HD현대가 축적하고 있는 설계·공정 중심의 디지털 역량이 미국 조선 인프라와의 협력 과정에서도 중요

한 참고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선소 운영과 엔지니어링 체계를 어떻게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지가 향후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조선 설계 체계를 바꾸겠다는 선언 자체가 의미 있는 출발”이라며 “향후 미국 조선소를 비롯한 해외 업계와의 공동 개발이나 협업 과정에서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곽노정 “AI 생태계 전반과 손잡는다”… SK, 글로벌 협력행보 가속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CES 직접 찾아 AI 기술 트렌드 점검
엔비디아·AMD 등 핵심 인사 교류
고객 전시관서 AI 메모리 전략 설명
차세대 HBM·맞춤형 메모리 공개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을 찾아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에 나섰다. 이를 통해 AI 생태계 전반에서의 파트너십을 확장하고, 공급망 전 영역에서 시너지를 일으키겠다는 구상이다.

SK하이닉스는 곽 사장이 이번 행사 기간 중 25곳의 주요 고객사와 파트너들을 연이어 만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그는 전시 기간 중 현장 곳곳을 누비며 글로벌 인공지능(AI) 트렌드



(왼쪽)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이 소재·장비 협력사인 머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도 직접 확인했다.

곽 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오전 미국 라스베이거스 폰텐블로 호텔에서 열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특별 연설을 참관하며, AI 사업과 관련된 신규 비전을 경청하고 기술적인

사이트를 얻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같은 날 오후에는 베네치안 호텔에서 진행된 리사 수 AMD CEO의 기조 연설 행사에 참석해 새로 공개된 AI 가속기와 시스템 구조를 직접 확인했다.

또 AI 인프라, 영업, 글로벌 마케팅을

총괄하는 핵심 임원들과 함께 향후 고객 플랫폼에서 회사의 역할과 차별화 전략을 점검했다.

곽 사장은 지난 6일에도 베네치안 엑스포의 SK하이닉스 고객용 전시장을 찾아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SK하이닉스는 올해 ‘혁신적인 AI 기술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다’를 주제로 전시관을 마련했다.

이 현장에는 차세대 HBM 제품인 HBM4 16단 48GB를 비롯해 HBM3E, 소램2(SOCAMM2), 최신 저전력 D램(LPD DR6) 등 최신 제품이 공개됐으며 특히 고객맞춤형 ‘cHBM(Custom HBM)’ 구조를 시각화해 전시했다.

곽 사장은 현장에서 전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전시물을 둘러보며 차세대 AI 인프라의 핵심인 메모리 솔루션 포트

폴리오와 향후 기술 방향을 살폈다. 성공적인 CES 전시를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 온 이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곽 사장이 전시 현장의 디테일 하나까지 꼼꼼히 챙기며 회사의 AI 관련 솔루션과 기술력을 알리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AI 생태계 내에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행보를 이어가며, 이미 구축한 선도적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기술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한층 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라고 밝혔다.

앞서 곽 사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진정한 풀스택 AI 메모리 크리에이터로 도약하기 위해 기존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제시하고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5대 금융지주, 5년간 포용금융 70조 투입… 서민·소상공인 금리 완화

정책기조 맞춰 금융취약층 지원 확대
고금리 대출 대한·금리인하 혜택 강화
서민·자영업자 재기·성장 집중 지원

5대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N H농협)가 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5년간 포용적 금융에 70조원을 투입한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5년간 총 1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재기 및 자산형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10조50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6조5000억원을 투입한

다. 제2금융권과 대부업권 대출의 KB국민은행 대환을 지원하고, 저신용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에 대한 금리인하를 통해 금융 부담을 완화한다.

신한금융은 5년간 총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공공배달 서비스 ‘뽕겨요’ 등을 활용한 다양한 포용금융을 실천한다.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로의 전환 지원 ▲고금리 대출 이용 저신용 개인 고객의 금리 대폭 인하(헬프업) ▲소상공인 이자를 일부 환급해 원금 상환 지원(선순환) 등 3대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적극적인 포용 금융 실천을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하나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5년간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말 1.9%포인트(p)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새희망홀씨를 출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도 고금리 개인사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서울형 개인사업자대출 갈아타기, 햇살론 이자 캐시백 등 포용금융 신사업을 추진해 고객의 실질적인 금융비용 절감에 나설 계획이다. 예를 들

어 1000만원을 연 12.5%로 대출받은 차주는 매월 캐시백으로 1만6667원, 1년간 총 20만원의 이자 캐시백을 받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5년간 7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추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먼저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 대출’을 출시한다.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으로 한도는 1000만원이다. 우리금융은 ‘긴급 생활비 대출’을 연 7% 이하의 금리로 제공할 예정이다.

개인신용대출 금리도 연 7% 이하로 제한한다. 우리은행 신용대출을 1년 이

상 이용한 고객은 기간 연장(재약정) 시점에 연 7% 금리 상환을 적용한다.

농협금융은 올해부터 5년 간 15조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한다. 먼저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상품별 최대 우대금리를 0.3~0.5%p로 확대해 농업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다. 농업인 우대 규모는 올해 5조 2193억원 2027년 5조 4830억원 2028년 5조 76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이자 절감액은 같은 기간 233억원→245억원→257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나유리기자 yul115@

대한민국을 더 높게

AI메모리 기술로 한층 더 빛날 대한민국의 가능성과 자부심
그 중심에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We Do Technology
첨단기술의 중심,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hynix



필리버스터 정국에 민생입법 지연… 이달 처리여부 ‘주목’

오는 15일 본회의서 주요법안 처리
2차 종합특검에 대처 지속될 수도
반도체특별법 등 조속 처리해야

여야가 지난해 말부터 각종 쟁점 법안들로 대치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정국으로 본회의 일정을 소비한 가운데, 1월 임시국회에선 반도체 특별법 등 계류 중인 법안의 통과를 노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8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하고 1월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오는 15일에 본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오는 11일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다음주엔 양당 모두 원내 진용을 갖추고 본회의에 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새해 첫 법안으로 '2차 종합특검' 법안을 처리한다는 입장 이어서, 국민의힘이 다시 필리버스터 전



한정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락을 들고 나올 가능성도 있다. 새해를 맞이했음에도 여야의 감정적인 대치가 이어지면서 민생·경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입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민의

힘이 주장한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 주 52시간 근로 면제 조항 없이 반도체 인프라 지원과 세제 지원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담아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내란재판부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지난해 연말 필리버스터 정국에 상정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며 본회의

상정과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반도체 강국들이 직접 보조금 등 각종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선점과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작 우리 국회에선 정쟁에 휩싸여 골든타임을 허무하게 흘려 보내고 있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이 떠들썩하게 연말에 집중포화를 했던 쿠팡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도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의원 133인은 ▲반복적 개인정보 유출 ▲입점업체 및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 계약 관행과 우월적 지위 남용 ▲물류·배송 노동자의 권리 침해와 과도한 노동 강도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안전관리 체계의 미흡 등 쿠팡이 일으켰다고보고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쿠팡 연석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했었던 만큼 협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전날 "8일 본회의를 열어 '쿠팡 국정조사요구서 보고' 및 주요 민생·개혁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이 임박한 데다 대통령 외교 순방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본회의 개최를 미룬다"며 "의장은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즉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해 이번 회동 무산으로 처리하지 못한 시급한 안건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정에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인 민생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 입법 처리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가하도록 하겠다"며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 산적인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與 원내대표 후보 4인, 김병기·이혜훈 관련 입장 엇갈려

한병도·박정, 김병기 판결 '신중론'
진성준·백혜련 '김 전 대표 탈당해야'
이혜훈 의혹엔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보궐선거전일이 막이 오른 가운데, 당 내부 최대 현안인 '김병기 전 원내대표 탈당'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의혹'을 둘러싸고 후보들간의 입장이 미묘하게 엇갈린다.

이해충돌·보좌진 갑질·공천현금 수수 의혹 끝에 원내대표 직을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탈당할 의사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 내부에서도 김 전 원내대표에 대한 탈당을 압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한병도·진성준·박정·백혜련 후보자(기호 순)들도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의원은 전날(7일) 모 방송에 출연해 김 전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



한병도
민주당 의원



진성준
민주당 의원



박정
민주당 의원



백혜련
민주당 의원

"윤리감찰단에서 이미 감찰이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사안이 윤리심판원에 가 있고, 김 의원의 소명까지 들어서 (징계) 결정이 12월에 날 것이다, 조만간 판결이 나니까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한 의원은 8일엔 라디오에 출연해 당 공천 현금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정 후보도 한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윤리심판원에 맡겨놨는데 이걸 뒤엎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반면, 진성준 후보는 당이 어려울 때 당을 먼저 생각하고 개인적 일은 뒤로 미뤄달라며 '선당후사'를 강조하며 김 원

내대표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백혜련 후보는 "이 건은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할 문제"라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에도 청문회를 지켜본다는 입장이지만, 너무 많은 의혹이 나오는 탓에 원내대표 후보자들도 탐탁치 않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9일 즈음에 실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너무나 많이 최소한 이들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진성준 후보는 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이념과 진영을 떠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기용하겠다는 실용주의 인사원칙을 갖고 계시고 당도 당연히 존중해야 되지만 하루가 멀다하고

여러 의혹이 터져 나온다"며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 했다는 정치적 입장도 문제지만 갑질·부동산 투기 의혹, 투자 관련 문제가 연일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후보는 라디오 방송에서 "청문 절차가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최종 청와대에서 판단을 할 것"이라며 "이것도 하나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청문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후보도 한 방송에 출연해 "인사청문회에서 의혹에 대한 해명이 되는지, 국민이 이 후보자 사과를 수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최종적인 판단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고, 박정 후보는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에 대한 것은 검증을 통해야 하며, 무조건 여당이라서 방어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능력이 충분한지 상대적으로 도덕적 흠결을 (능력) 커버할 수 있는가를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국민의힘, 인사 논란에도 '윤민우 윤리위원장' 임명

부정선거 음모론 동조 등에도 선출
당 지도부, 윤 위원장 내정 의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족이 연루된 '당원계시판 사건' 징계 여부를 논의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8일 정식으로 출범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윤리위원장으로 뽑힌 인사에 대한 논란이 있음에도, 그대로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절차에 가족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 윤민우 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 임명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리위원 7명 중 3명의 사퇴로 공백이 생긴 것과 관련, 이날 윤리위원 2명을 추가로 선임해 새 윤리위 구성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윤리위원 7명의 선임안을 의결했는데, 언론을 통해 명단

이 공개되면서 이력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윤리위원 3명이 곧바로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나머지 윤리위원들의 호선에 따라 윤민우 위원장이 선출됐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윤리위원 명단 유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대표도 "명단 유출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엄중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윤리위원이 공개된 사안에 대해 여러 최고위원이 깊은 우려를 표하셨다. 당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데 많은 공감대가 있었다"며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추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 얘기가 오간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일각에서 이날 임명된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위원장은 과거 한 매체 기고문을 통해 "개딸들의 이재명 사랑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경멸과 질투, 미움과 연동되어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하는 시각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대표를 밀어내려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위원장을 사실상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날 최 수석대변인은 윤 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이의 제기하거나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예진 기자 syj@

與 을지로위원회, '쿠팡 바로잡기 TF' 운영

불공정거래 행위, 책임 회피 겨냥

더불어민주당의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을지로위원회)'는 쿠팡의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와 사회적 책임 회피 문제를 겨냥한 '쿠팡 바로잡기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TF 구성 및 운영 소식을 밝히며 쿠팡이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배달앱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담의 입점업체 전가 ▲퀵커머스 사업 확장에 따른 도소매 상권 침탈 ▲입점·납품업체 영업정보를 활용한 PB상품 판매 ▲광고·마케팅 비용 강요 등 불공정거래 ▲택배노동자 과로사 및 산재 은폐 의혹 등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 왔다고 설명했다.

을지로위는 이 같은 문제들이 개별 사

건이나 일시적 논란에 그치지 않고, 거대 플랫폼기업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회피해 온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쿠팡은 330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국회 전체회의나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지만 쿠팡은 핵심 자료 미제출, 사건의 은폐·축소, 책임을 회피하는 답변 등 이른바 '버티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며 국회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을지로위는 "최근 쿠팡이 미국 내 로비 활동 등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관련 입법 논의를 지연시키려 했다는 정황까지 드러나고 있다"며 국내 시장에서 발생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제도 개선을 저지하려는 태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외국인은 통장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
“한국은 주말이라... 해외 송금은 당연히 안 되겠지?”
“은행 상담 때마다 한국어가 안 통해서 답답해”

| 방송인 수잔 샤키야 |

15년 간 한국 생활에 완벽 적응한 수잔 샤키야님은
오늘도 하나은행과 함께 행복을 키워가고 계십니다.

HANA THE EASY 하나더이지

외국인의 한국생활 필수 파트너

외국인 손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할 하나뿐인 솔루션 ▶ 외국인 전용 맞춤 금융 / 간편 금융 / 다국어 금융 상담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편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수수료 의존 한계… 코인거래소, 법인 선점·상품개발 등 사활

금융위 FIU, 작년 국내시총 줄어
실명거래·김치 프리미엄 영향에
국내 투자자, 해외 거래소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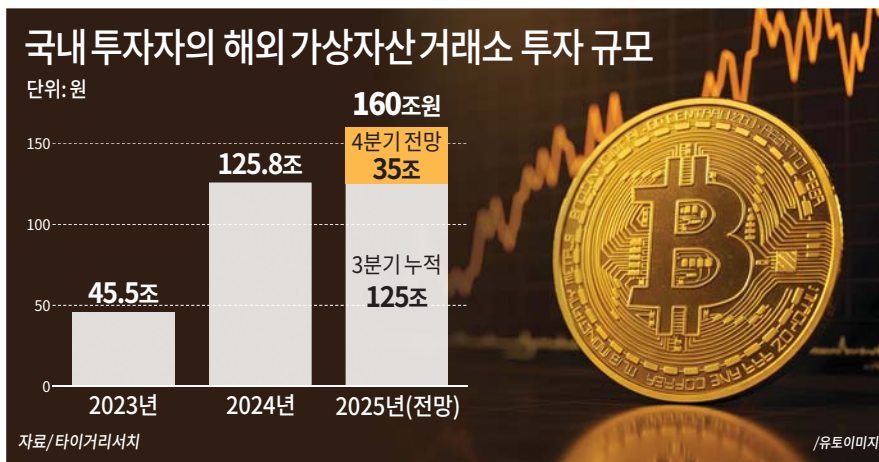
업비트·빗썸 등 국내거래소 5곳
법인회원 서비스 오픈 등 경쟁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다가올 규제 환경 변화에 대비해 법인 거래 인프라 구축과 고객 사전 유치, 외연 확대 등 수익 다각화에 나섰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면서 수수료 인하와 점유율 확대 전략이 한계를 맞았기 때문이다. 다만 파생상품 취급 금지와 금가분리 원칙 등 규제 환경이 여전히, 산업 경쟁력을 위해선 제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투자자 해외 이탈 가속

8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1077만명이다. 2024년 말 970만명에서 6개월 만에 100만명 넘게 늘었다. 이용자는 늘었지만 같은 기간 일평균 거래대금은 7조3000억원에서 6조4000억원으로 9000억원 줄었다. 국내 가상자산 시총도 110조5000억원에서 95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 증가에도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거래 규모가 감소한 것은 기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고 있어서다. 가상자산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한국인 투자자들이 지난해에만 16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것으로 분석했다. 2023년의 45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약 3.5배 가량 늘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것은 투자 기회의 불균형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는 거래 시 실명계좌를 요구한다.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거래는 불가한 만큼 가격 변동성이 높고, 국제 시세와 국내 가격이 불일치하는 '김치 프리미엄'도 발생한다. 관련 법령의 부재로 헤지(가격 하락 회

피)·위험 분산·수익 극대화 등에 활용 가능한 파생상품도 이용할 수 없다.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의존한다. 파생상품 거래가 금지된 만큼, 거래소 간 경쟁도 거래 수수료 인하·면제 등 수수료 경쟁과 점유율 확대에만 국한됐다.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이 줄면 관련 산업의 성장에도 제동이 걸리게 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에 매출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면서 "거래 규모가 줄어드는 시장 환경에서는 수수료 인하를 통한 점유율 경쟁도 어렵고, 점유율 확대 시에도 매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인 거래·외연 확대 등 '할로 물색'

개인 투자자가 해외로 빠르게 이탈하면서 국내 거래소가 기대를 거는 것은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통해 법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거래를 점진적으로 확대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같은 해 6월 비영리법인의 거래는 허용됐지만, 당초 작년 하반기를 목표로 했던 상장법인·전문투자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허용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현안에 입법 우선순위가 밀려났다.

업권에서는 올 상반기 중 법인 거래가 허용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법인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도 활발하다. 5개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거래소 홈페이지 내에 법인 회원 서비스를 오픈했으며, 포트폴리오 분배 사전 상담 제공, 법인 회원 전용 상담원 배치, B2B 세미나 개최 등 각종 서비스를 통한 고객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거래소들은 경쟁력 높은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외연 확대도 추진한다.

업비트는 네이버와의 결합을 통해 IT와 결제, 가상자산을 아우르는 '슈퍼

플랫폼'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코빗은 미래에셋그룹 편입을 통해 상품 다양화, 투자 전문성 확보 등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고팍스도 2년 넘게 늘어졌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하고, 세계 최대 거래소 바이낸스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빗썸은 상반기를 목표로 거래소 최초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이다.

국내 거래소들이 매출 확대 전략을 준비중이지만 정치권에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금가분리 원칙 완화, 가상자산 규율 명확화, 규제 불확실성 해소 등 제도 개선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기본법(가상자산 기본법)'을 논의 중이다. 기본법은 지난해 말을 목표로 입법을 추진했지만,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놓고 금융당국과 한은의 견해차가 이어지면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규제 명확화를 기대하고 영업 확대 전략을 준비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있어 입법 시기가 올해 말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데, 입법이 밀리면 업권의 침체도 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KDB생명 새 수장에 '영업통' 김병철 내정

내달 주주총회서 대표 선임 마무리
재무·영업 정상화 로드맵 본격 가동

KDB생명이 수장 교체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KDB생명은 김병철 수석부사장(사진)을 신임 대표 후보로 정하고 오는 2월 주총을 통해 대표 선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임승태 현 대표 임기 만료 이후 후임 인선이 길어지면서 경영 공백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이번 인선은 재무·영업 정상화로 드림을 본격 가동하는 분기점으로 해석된다. 산업은행이 5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면서 자본잠식과 '실질 건전성' 회복이란 과제를 떠안았다. 영업·채널 전문가로 분류되는 새 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KDB생명은 최근 수년간 급리 급변과 자산·부채 평가 변동성 확대 속에서 재무 체력이 약화했다. 지난 2025년 3분기 말 기준 자본총계가 약 -1000억원대로 내려앉아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산은재무구조를 손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515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했다. 주당 5000원에 신주 1억300만주를 발행하는 구조로, 최대주주인 산은이 대부분을 책임지는 형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증자를 '재무제표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보면서도, 곧바로 체질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예상한다. 자본이 흔들리면 신계약 확대에 필요한 채널 경쟁력도 떨어지고, 수익성 낮은 판매 확대는 오히려 자본 부담을 키울 수 있어서다. 결국 자본을 보강한 뒤에는 상품·채널 믹스를 손질해 '질 좋은 성장'을 만들어내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건전성 지표도 '경과조치' 적용 여부에 따라 체감이 크게 갈린다. KDB생명은 2025년 상반기 말 기준 K-ICS(지급여력 비율)는 경과조치 적용 시 176.6%로 금융당국 권고치(130%)를 웃돌지만, 경과조치 전 기준으로는 43.3%에 그쳤다. 경과조치는 제도 전환기 충격

을 완화하기 위한 '시간 벌기' 성격이 강해, 장기적으로는 실질 자본을 쌓아 격차를 좁히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정 최소치(100%)를 기준으로 보면, 경과조치 전 수치는 구조개선 과제가 남아 있다는 신호다.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 자본잠식 해소와 K-ICS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증자 이후 경과조치 적용 K-ICS가 30~40%포인트(p)가량 개선될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단순 '수혈'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수익성 있는 신계약을 확보하고 자산·부채 관리(ALM)로 자본 변동성을 줄이는 '영업 기반 정상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김병철 내정자가 '영업통'으로 불리는 이유도 이 대목에서 연결된다. 김 내정자는 1969년생으로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메트라이프 총괄 본부장, ING생명 채널전략 부문장과 신채널(GA·BA) 총괄, AIA생명 영업채널 총괄, 푸본현대생명 전략영업본부 총괄 등을 거쳤다. KDB생명에는 수석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김주형 기자 gh471@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오른쪽)이 라오 린 ICBC 회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ICBC와 협력 논의

자본 건전성·유동성 조달 등 기대

신한금융그룹은 진옥동 회장이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한 데 이어, 지난 5일 중국공상은행(ICBC)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협력 구조 고도화 및 중장기 금융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진 회장은 라오 린 ICBC 회장과 함께 해외 사업 확대 과정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외화 유동성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통화스왑 확대'를 포함한 자금 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양 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투자 및 기업금융(IB) 분야에서의 공동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한금융과 ICBC는 지난 2008년부터 원화·위안화 간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해 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 안정에 기여해 왔다. 이후에도 신한금융의 자본 효율성 제고 및 위험가중자산(RW

A) 관리, ICBC의 한국 관련 자산 포트폴리오 다변화라는 상호 목적에 따라 자산 관리 협력을 지속해 왔다.

양사는 이번 면담을 통해 기존 통화스왑 규모 확대와 함께 각사의 글로벌 네트워크 가운데 중복되는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 통화스왑 체결을 통한 외화 조달 비용 절감 가능성 등 중장기 협업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신한금융은 이번 논의를 계기로 단순 거래 확대를 넘어 자본 건전성과 유동성 조달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대외 금융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구조적 협력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방침이다.

진옥동 회장은 "ICBC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트워크와 자금력을 보유한 파트너"라며 "신한금융은 ICBC와의 이번 면담을 계기로 양 그룹 간 실질적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동 성장 기회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 아파트값 0.18% ↑… 48주 연속 상승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 전국 아파트 가격은 0.06% 상승했다. 전세가격은 0.08%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8% 상승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줄었지만 48주 연속 올랐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으로 거래량 및 매수문의가 감소한 가운데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어지며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3%)가 하왕십리·금호동 중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

(0.26%)는 이촌·문배동 위주로, 중구(0.25%)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24%)는 성산·공덕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에서는 동작구(0.37%)가 사당·상도동 위주로, 서초구(0.27%)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27%)는 신천·방이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0.08%, 0.05%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CES 2026

박정원 “에너지 솔루션으로 AI 시장 선도”

〈두산그룹 회장〉

DOOSAN

주요 경영진 美 현장경영 나서
박 회장, 글로벌 전력사업 강조
그룹 차원 해외 공개채용 실시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현장을 찾아 “두산의 맞춤형 에너지 솔루션으로 AI 시대 에너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며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사업 전략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7일(현지시간) 박지원 그룹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지빌리티 부회장, 스캇박 두산팍켓 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과 함께 CES 웨스트홀에 ‘Pow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오른쪽)과 박지원 그룹부회장(왼쪽)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현장에서 두산 부스에 전시된 가스터빈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두산그룹

ered by Doosan’을 주제로 마련된 두산그룹 부스를 방문했다. 부스에는 AI 데이터센터용 중심으로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솔루션과 AI 기반 신기술이 집중 전시됐다.

박 회장은 부스를 둘러본 뒤 “AI 시대를 맞아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고객 여건에 따라 에너지 공급 방식도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각각의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솔루션을 갖추고 있는 만큼 맞춤형 전략으로 에너지 시장을 리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번 CES 일정과 맞물려 현지에서 열린 공개채용도 직접 챙겼다. 두산이 그룹 차원에서 해외 공개채용을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채용 대상은 미국 대학 유학생 가운데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거나 졸업 예정인 공학계열 전공자로, AI를 비롯해 가스터빈·원자력·로봇틱스 등 두산의 핵심 사업과 연관된 R&D 직무가 중심이다.

박 회장은 “이번 채용을 시작으로 두산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열정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인도 타밀나두(Tamil Nadu) 주(州) 정부 대표단 일행이 8일 HD현대중공업 방문해 조선소 야드를 둘러보고, 실제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했다(왼쪽부터 최한나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 라자(T.R.B Rajaa)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 /HD현대

HD현대 인도 정부 대표단 맞이

HD현대는 8일 라자(T.R.B Rajaa) 인도 타밀나두 주 산업부 장관과 다가(Gaurav Daga) 타밀나두 투자청 상무 등 대표단 5명이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HD현대중공업 상선 및 특수선 야드를 둘러보며 선박 건조 현장을 참관하고, 자동화 설비 등 첨단 생산 시스템을 포함해 조선소 운영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살폈다.

최한나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은 “이번 타밀나두 주 정부 관계자들의 방한은 조선산업 육성에 대한 인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인도와외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 강화는 시장 확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혜은 기자 dhalehdale@

류재철 “수익성 기반 성장구조 구축”

〈LG전자 CEO〉

LG전자

류 CEO, 사업전략·포부 밝혀
“고성과 포트폴리오 전환 속도”

류재철 LG전자 CEO가 ‘근원적 경쟁력 확보’와 ‘고성과 포트폴리오 전환’을 통해 ‘수익성 기반 성장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류 CEO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O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전략과 포부를 밝혔다.

그는 “LG전자는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 현재 처한 경쟁의 생태계를 냉철하게 직시하고 이를 뛰어넘는 속도와 강한 실행력을 가져야만 생존



류재철 LG전자 CEO가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전략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류 CEO는 ▲어떠한 경쟁에도 이기는 근원적 경쟁력 확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성능 포트폴리오 전환 ▲AX로 변화의 속도와 실행력을 혁신해

신해 수익성 기반 성장을 만드는 체질 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업(業)의 본질에 해당하는 ‘품질·비용·납기’ 경쟁력이나 초격차를 만드는 ‘R&D·기술’ 리더십 등이 근원적 경쟁력에 해당한다.

우선 지난 수십여 년간 노하우나 경쟁력으로 여겨왔던 관성에서 벗어나 밸류체인 전반에서 경쟁 생태계 대비 동등 이상 속도를 갖추고 제품력, 품질, 디자인, 원가구조 혁신을 추진한다.

R&D·기술 영역은 유망 분야보다는 고객가치, 사업 잠재력, 기술경쟁력 관점에서 ‘위닝테크’를 선정,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기는 경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해 나간다.

수요 둔화, 경쟁 심화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사업방식과 사업모델 혁신 기반의 조성하고 포트폴리오 전환은 실행에 더욱 속도를 낸다. ▲B2B(전자, HVAC 등) ▲Non-HW(구독, 웹OS 등) ▲온라인 사업(D2C, 소비자직접판매) 등 ‘질적 성장’ 영역이 대표적이다. 질적 성장 영역이 LG전자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21년 29% 수준에서 지난해 하반기 45%까지 올라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의 비중은 21%에서 90%까지 높아졌다.

전장 사업은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 높은 수주잔고 기반의 성장을 이어 나감과 동시에 SDV(소프트웨어중심차량)를 넘어 AIDV(인공지능중심차량) 역량 주도에도 박차를 가한다. HVAC 사업은 AIDC에 적용되는 냉각 솔루션을 앞세워 미래 성장기회를 확보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모비스, SDV 등 글로벌 협력체계 고도화

퀄컴과 자율주행 분야 등 협력 MOU

현대모비스가 AI로봇틱스와 소프트웨어중심차(SDV) 등 첨단기술분야에서 글로벌 전문기업들과 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미래 먹거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현대모비스는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미국 반도체 선도기업 퀄컴과 SDV,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분야 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현대모비스와 퀄컴은 각 사가 보유한 시스템 통합, 센서퓨전, 영상인식, 시스템 온 칩 기술을 바탕으로 통합 ADAS 기술을 선보인다.

현대모비스의 제어기와 소프트웨어에 퀄컴의 반도체칩을 적용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도 가속화한다. 이

를 통해 성능과 효율성, 안정성을 높인 SDV 통합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양사는 특히 자율주행과 자율주차에 최적화된 첨단기술을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 시장의 니즈에 특화해 개발하기로 했다. 해당 국가들의 자동차 시장이 소형차 중심에서 다양한 차종으로 확대되며 ADAS 보급률 또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는 이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식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는 계약도 체결했다. 로봇틱스 분야 신규 진출을 선언한 뒤 확보한 첫 계약이다.

현대모비스는 액추에이터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핸드 그리퍼, 센서, 제어기, 배터리팩 등 고성능로봇 부품으로 설계역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현대위아, 열관리 시스템 부품 3종 공개

‘모빌리티 열관리 전문가’ 비전 제시

현대위아가 모빌리티 열관리 부품 신제품을 공개하고 글로벌 모빌리티 열관리 전문가로 성장하겠다는 비전을 밝혔다.

현대위아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새롭게 개발한 열관리 시스템 부품 3종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먼저 전기차 열관리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ITMS 신제품은 자동차 내에 분산 배치되어 있던 여러 열관리 부품과 기능을 하나의 부품으로 집약한 모듈이다. 특히 세계 최초로 총 10개의 포트에 구성된 ‘데카 밸브’ 기술을 적용, 열관리 효율을 크게 높였다.

두 개의 라디에이터를 하나로 통합한 쿨링모듈도 공개했다. 이 쿨링모듈은 현재 사용되는 모듈 대비 두께가 20% 줄었고, 무게는 7% 감소했다. 덕

분에 여유 공간을 더 확보해 프런트 트렁크의 활용도도 높였다.

기존 HVAC 패키지의 높이를 30% 이상 줄인 슬림 HVAC도 함께 선보였다. 크기를 대폭 줄인 만큼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했고, 경량화를 통해 전비도 향상했다.

현대위아는 2032년까지 글로벌 열관리 전문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함께 밝혔다. ▲친환경 ▲고성능·고효율 ▲쾌적·편의성을 갖춘 통합 열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현대위아 TMS사업부 김남영 전무는 “데카밸브 ITMS를 비롯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마트 제어, 환경악영향이 적은 새로운 냉매를 적용한 시스템으로 연구를 확장하고 있다”며 “CES에 선보인 슬림 HVAC과 같이 부피와 무게를 지속적으로 줄여 전비 개선과 공간 활용도 극대화를 모두 이루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LS전선-한국전력 자산관리 솔루션 사업화

LS전선이 한국전력과 실시간 케이블 진단 기술을 통합한 자산관리 솔루션의 글로벌 사업화를 추진한다.

LS전선은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2026에서 한전과 케이블 상태판정 기술(SFL-R) 사업화 및 글로벌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계약을 통해 국내 전력산업의 제조 및 운영 통합 솔루션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공략에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사는 올해 사업이 본격화되는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에 해당 협력 모델이 최초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레퍼런스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민술 인턴기자 mnskim@

LG이노텍-UTI 유리기판 기술개발 맞손

LG이노텍이 유리 가공 전문업체 ‘유티아이(UTI)’와 함께 유리기판 기술 개발에 나선다.

LG이노텍은 유리기판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티아이(UTI)와 연구개발 협력을 맺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LG이노텍은 유티아이와 유리기판의 강도를 높이는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문혁수 LG이노텍 사장은 “유리기판은 반도체 패키징의 판을 바꿀 기술”이라며 “LG이노텍은 50년 동안 이어온 기판소재 기술에 유리 정밀가공 기술을 더해, 탁월한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제품을 지속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조사 착수… 전용 신고센터 운영

중기부, 입점업체 매출 현황 파악
소공연 누리집서 8일부터 접수
소비자 불만 확산에 피해 우려
宋 “책임 공백 속 고통 심각”
조사 결과로 범정부 대응 검토

정부가 쿠팡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본격 나선다. 신고 접수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강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와 8일부터 소공연 누리집(www.kfme.or.kr)에서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 사실 파악을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기부와 소상공인업체에 따르면 쿠팡 사태로 인해 소비자들의 정보 보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쿠팡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 창구가 없다는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쿠팡의 멈추지 않는 갑질, 벼랑 끝 자영업의 절규-자영업 말살하는 쿠팡 규탄’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한계가 있었다.

중기부와 소공연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쿠팡 입점 소상공인의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동시에 소상공인 대상 피해조사를 실시한다.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은 누구나 피해 내용을 접수할

수 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 대표단체가 직접 나서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접수받아 중기부에 전달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소공연에 따르면 쿠팡 입점 셀러의 약 75%가 소상공인으로 추정된다. 앞서 소공연은 ▲쿠팡 과실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 ▲입점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시스템 중단 ▲국회의 쿠팡 국정조사 즉각 실시 등을 촉구했다.

효성重, 초고압변압기 누적생산액 10조 돌파

창원공장, 국내 첫 단일 공장 기록
50년 기술 축적… 초고압 국산화
미국·유럽 핵심 시장 점유율 1위
HVDC 등 차세대 전력기기 확대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원을 돌파하며 국내 전력기기 산업에서 독보적인 성과를 거뒀다.

8일 효성중공업에 따르면 창원공장은 지난 7일 기준 초고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0조원을 달성했다. 단일 공장에서 초고압변압기와 차단기 생산액이 각각 10조원을 넘어선 것은 국내에서 효성중공업 창원공장이 유일하다.

효성중공업은 1969년 국내 최초로 154kV 초고압변압기를 개발·생산한 이후 기술 축적을 이어왔다. 2002년 초고

압변압기 누적 생산액 1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4년 5조원을 달성했고 올해 1월 10조원 고지를 넘어섰다.

지난 50여 년간 효성중공업은 독자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전력산업의 핵심 축을 담당해 왔다. 154kV와 345kV 초고압변압기에 이어 1992년에는 세계 여섯 번째이자 국내 최초로 765kV 초고압변압기를 독자 개발하며 초고압 전력기기 국산화를 이끌었다. 2022년에는 400kV 친환경 절연유 변압기 개발에 성공했으며, 최근에는 전압형 HVDC 독자 기술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에 공급될 500kV HVD C 변환용 변압기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기술 경쟁력을 토대로 효성중공업은 현재 전 세계 70여 개국에 맞춘

형 전력기기를 공급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는 2010년대 초부터 765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영국·노르웨이 등 기술적 진입장벽이 높은 유럽 주요 송전시장에서도 400kV 변압기 점유율 1위를 기록하며 입지를 굳혔다.

글로벌 수주 확대에 힘입어 창원공장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 초고압변압기 단일 품목 기준 연간 수주액 1조원 이상을 이어가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초고압변압기 생산 10조원 달성은 그간 쌓아온 고객의 신뢰와 ‘최고 품질’을 향한 창원공장의 집념이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변압기·차단기·HVDC 등 토털 솔루션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겠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이병권 “글로벌 기업 성장위해 정책 확대”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중기부, ‘글로벌 소상공인 육성’ 추진
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8일 “지역 청년과 소상공인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로컬에서 출발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최근 K-컬처의 확산과 함께 많은 로컬기업들이 수출에 도전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재 중심의 수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간담회 시즌1’에 이어, 11월부터 추진 중인 ‘소상공인 성장 중심 릴레이 간담회 시즌2’의 일곱 번째 행사다.

중기부는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로컬창업 기업의 역할에 주목하고, 이러한 로컬창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공유하기 위해 로컬 창업가 9명과 투자전문가 등을 초청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서 크립톤 양경준 대표는 ‘로컬창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자의 역할’이란 주제로 지역에서 출발한 로컬창업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를 소개했다. 양 대표는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관계인구 유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과 대한민국 전반으로 긍정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8일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제7차 소상공인 성장 릴레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적 효과가 확산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어진 글로벌 진출 성공사례 발표에서는 서산, 제주, 영덕 등 다양한 지역의 로컬창업 기업들이 지역 자원과 고유한 스토리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구축하고 해외시장에 진출해 성과를 거둔 경험을 공유했다.

/김승호 기자

팅크웨어, 사용자 편의강화 블랙박스 선포

‘아이나비 ZX3000’ 선보여
고온차단 등 안전기능 강화

팅크웨어가 사용자의 편의성과 제품 안전성을 강화한 블랙박스 ‘아이나비 ZX3000’ (사진)을 출시했다.

8일 티ंक웨어에 따르면 이번 신제품은 ‘아이나비 ZX1000’의 후속 모델로, 전후방 FHD 30fps 녹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메모리 사용 효율을 높이는 ‘메모리 절약 모드’ ▲배터리 전압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저전압 상황에서 전원을 자동 차단하는 ‘배터리 방전 보호 기능’ ▲고온 환경에서 제품 손상을 자동 방지하는 ‘고온 차단 기능’ 등 제품의 안정성을 높이는 기능을 탑재했다.

실제 사용 환경을 고려한 편의 기능도 강화했다. 어두운 주행·주차 환경에서도 번호판과 주변 사물을 보다 선명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나이트 비전’ 기능을 적용했으며, 3.5인치 풀 터치 LCD를 통해 영상 재생과 설정 메뉴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다. 아울러 제품 품질 강화 정책에 따라 2년 무상 A/S를 제공해 유



지·관리 편의성도 높였다.

‘아이나비 ZX3000’은 실시간 통신 기반의 ‘커넥티드스탠다드플러스’ 서비스도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차 충격 실시간 알림 및 이미지 전송 ▲운행 기록 및 운전 습관 데이터 제공 ▲차량 소모품 교체 알림 ▲주행 중 큰 충격 발생 시 보험자에게 긴급 문자 전송 등 사용자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기능으로 구성했다.

팅크웨어 관계자는 “‘아이나비 ZX3000’은 저장 효율, 전원 관리, 야간 촬영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요구되는 핵심 성능을 중심으로 완성도를 높인 모델”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SK인텔릭스, ‘나무엑스’에 구글 제미니 연동

검색 기능 통해 이슈 등 실시간 답변

SK인텔릭스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웰니스 로봇 ‘나무엑스(NAMUHX)’ (사진)에 구글의 최첨단 AI 모델 ‘제미니 나이(Gemini)’를 연동해 초지능형 AI 웰니스 플랫폼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강화했다.

8일 SK인텔릭스에 따르면 나무엑스는 자율주행과 100% 음성 제어 기능을 바탕으로 실내 공기의 오염원을 스스로 감지·정화하는 ‘에어 솔루션(Air Soluti

on)’, 비접촉식 광혈류측정(rPPG) 기술로 체온·심장활동강도·맥박·산소포화도·스트레스 지수 등 5가지 주요 건강 지표를 10초 이내에 측정하는 ‘바이탈 사인 체크(Vital Sign Check)’ 등 혁신 기능을 제공한다.

향후 나무엑스는 차별화한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씨유리티, 뷰티, 명상, 핏케어, 슬립케어 등 다양한 웰니스 영역으로 서비스를 확장해 일상 전반을 케어하는 통합형 웰니스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음악·영상·검색까지 번진 ‘AI 슬롭’… 악의적 정보왜곡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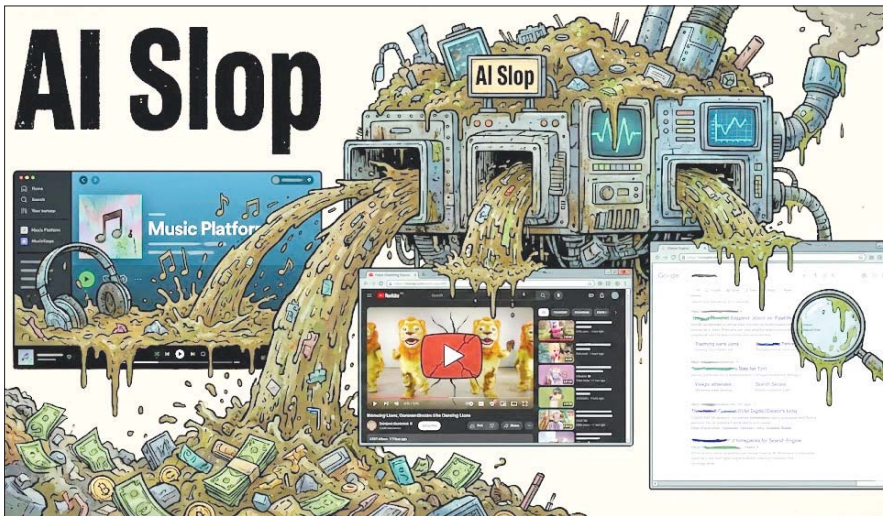
〈검증·맥락 없이 AI가 생산한 저품질 콘텐츠〉

유튜브 뮤직, AI 생성음악 과도 노출
韓, AI 슬롭 영상분야 ‘세계 1위’
독버섯 요리 레시피 추천 논란도

전문성·비용 없이 AI슬롭 무한증식
자율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대응해야

검증 없이 쏟아지는 인공지능(AI) 생성 콘텐츠, 이른바 ‘AI 슬롭(AI slop)’이 음악·영상·검색 영역 전반으로 확산되며 플랫폼 생태계의 신뢰도를 흔들고 있다. 알고리즘 노출을 노린 저품질 콘텐츠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이용자 피로를 넘어 정보 왜곡과 안전 문제까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메트로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I 슬롭은 명확한 검증이나 맥락 없이 대량 생산된 AI 콘텐츠를 뜻한다. 이는 정보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검색 및 추천 알고리즘을 교란해 인터넷 서비스 전반의 품질을 저해하고 있다. 그림, 음악, 영상은 물론 블로그포스팅까지 그 범위도 급속도로 확장되는 추세다.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저질 콘텐츠인 이른바 ‘AI 슬롭(AI Slop)’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GEMINI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IT 매체 테크레이더는 스포티파이에서 시작된 AI 슬롭 논란이 유튜브 뮤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레딧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자동 생성 플레이리스트와 뉴스 피드에 AI 생성 음악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일부 이용자는 추천 콘텐츠의 상당수가 AI 음악으로 채워졌다고 주장한다. 이용자들은 ‘관심 없음’이

나 ‘싫어요’ 기능이 개별 곡에만 적용되어, 쏟아지는 AI 슬롭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AI 슬롭의 수익성도 확인됐다. 영상 편집 플랫폼 ‘카프왕’이 국가별 상위 100개 유튜브 채널 1만500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278개 채널이 오로지 AI 슬롭 영상만을 송출하고 있었다. 이들 채널의 합계 조회수는 630억 회, 구독자

수는 2억2100만 명에 달하며 연간 약 1억1700만 달러(약 1700억원)의 수익을 거둬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 AI 슬롭 영상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한국 기반 상위 11개 AI 슬롭 채널의 합계 조회수는 84억5000만 회로, 국가별 기준 세계 1위다. 대표적 채널인 ‘3분 지혜’는 조회수 20억 회를 기록하며 전 세계 슬롭 채널 중 2위에 올랐다. 연 수익은 약 403만 달러(약 58억원)로 추정된다. 해당 채널은 사자 폐의 공격 속에서 브레이크댄스를 추는 등 맥락 없는 자극적 영상을 무분별하게 업로드하고 있다.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지난해 네이버 블로그에는 독우산광대버섯, 화경버섯 등 치명적인 독버섯을 식재료로 추천하는 AI 생성 레시피가 올라와 논란이 됐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의 AI 검색 시스템인 ‘AI 브리핑’이 이를 검증 없이 학습해 최근까지도 조리법을 추천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해당 결과를 삭제했으며, 저품질 문서 탐지

기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병호 고려대학교 AI연구소 교수는 이런 현상을 기술발전과 자본논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로 진단했다. 최 교수는 “과거에는 기획, 촬영, 편집에 막대한 비용이 들었지만, 이제는 전문성이 없어도 비용 없이 누구나 몇 분 만에 영상을 만들 수 있게 되면서 AI 슬롭의 무한 증식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슬롭 이코노믹(Slop-Economic)이라는 말을 제시했다. 그는 “플랫폼 입장에서는 트래픽이 수익이기에 콘텐츠가 쏟아지는 것을 막을 유인이 적다. 제작자와 플랫폼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면서 대량의 AI 콘텐츠가 수익으로 직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히 즐기는 ‘엔터테인먼트형 슬롭’과 홀로코스트 왜곡이나 가짜 뉴스 같은 ‘악의적 정보 왜곡형 슬롭’을 구분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 팩트체크를 담당할 ‘자율 AI 에이전트’를 도입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팀네이버, 국내 최대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

GPU B200 블랙웰 4000장 규모
AI 학습기간, 18개월 → 1.5개월로 단축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 속도

팀네이버가 인공지능(AI) 주권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낸다. 팀네이버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B200 블랙웰 4000장 규모를 기반으로 국내 최대 수준의 AI 컴퓨팅 클러스터 구축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팀네이버는 글로벌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와 AI 기술의 서비스·산업 적용을 위한 핵심 기반을 마련했다.

팀네이버는 단순한 GPU 도입을 넘어, 대규모 GPU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해 성능을 극대화하는 클러스터링 분야에서 경쟁력을 축적해왔다.

2019년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팅 인프라인 ‘슈퍼팟(SuperPod)’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한 이후, 초고성능 GPU 클러스터를 직접 설계·운영하며 실증 경험을 쌓아왔다.

이번에 구축한 ‘B200 4K 클러스터’에는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냉각, 전력, 네트워크 최적화 기술을 집약했다. 대규모 병렬 연산과 초고속 통신을 전제로 설계된 이번 클러스터는 글로벌 톱500 상위권 슈퍼컴퓨터와 비교 가능한 컴퓨팅 규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다.

인프라 성능 향상은 AI 모델 개발 속도로 직결된다. 팀네이버는 내부 시뮬레이션 결과, 720억 파라미터 규모 모델 학습 시 기존 A100 기반 인프라 2048장으로 약 18개월이 소요되던 학습 기간을 B200 4K 클러스터에서는 약 1.5개월 수준으로 단축할 수 있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수치는 내부 시뮬레이션 기준이며, 실제 학습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습 효율이 12배 이상 향상되면서, 팀네이버는 더 많은 실험과 반복 학습을 통해 모델 완성도를 높이고 기술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개발·운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대규모 학습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되며 AI 연구 전반의 속도와 유연성도 강화됐다.

팀네이버는 이번 인프라를 바탕으로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고도화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텍스트뿐 아니라 이미지, 비디오, 음성을 동시에 처리하는 옴니 모델 학습을 대규모로 확장해 글로벌 수준의 성능을 확보하고, 이를 다양한 서비스와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전략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삼성SDS, 구미시에 60MW 규모 AIDC 건립

‘CES 2026’서 경북도·구미시와 맞손

삼성SDS는 7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고 있는 ‘CES 2026’에서 경상북도, 구미시와 공동으로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과 김창호 구미시장,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참석했다.

삼성SDS는 구미시에 60MW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데이터센터는 삼성SDS가 2024년 12월 삼성전자로부터 취득한 옛 삼성전자 구미1사업장 부지에 들어서며, 2029년 3월 가동을 목표로 한다.

구미 AI 데이터센터는 AI·GPU 중심 서비스 운영에 적합하도록 고전력 IT 장비를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로 조성된다. 유연성과 확장성, 신뢰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 향후 AI 인프라 수요 증가에 대응할 예정이다.

삼성SDS는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냉각과 전력 인프라 전반에 최신 기술을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2026’ 삼성SDS 프라이빗 부스에서 (왼쪽부터)김창호 구미시장,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삼성SDS

적용한다. 서버룸에는 공냉식과 수냉식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쿨링 방식을 도입해, GPU 등 고발열 장비에는 냉수를 직접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발열이 낮은 장비에는 공냉식을 적용함으로써 전력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전력밀도의 랙 운영을 고려해, 향후 초고 전력 랙까지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경상북도와 구미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미 AI 데이터센터 건립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NC AI, 韓 산업환경 특화 소버린 AI ‘배키’ 공개

10조 토큰 규모 기반으로 학습
산업 확산 위한 효율·확장성 강점

NC AI가 대한민국 산업분야의 인공지능 전환(AX)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NC AI는 AX를 가속화할 확장형 멀티모달 생성 파운데이션 모델 ‘배키(VAE TKI)’를 8일 공개했다. 배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성과로, 글로벌 빅테크 중심의 AI 생태계 속에서 대한민국 기술 주권을 지키는 소버린 AI 핵심 자산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NC AI는 배키를 통해 K-AI 기술력이 글로벌 최상위 수준에 도달했음을 수치로 입증했다. 자체 성능 평가 결과, 배

키 100B 모델은 오픈AI의 GPT OSS, 메타의 라마(Llama) 계열 등 글로벌 SOTA 오픈소스 모델과 비교해 대등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성능을 기록했다.

배키는 대한민국 산업 환경에 특화된 소버린 AI로 설계됐다. 10조 토큰 규모의 대규모 코퍼스를 기반으로 학습했으며, 토큰라이저 여회의 20%를 한국어에 할당하고 고어까지 처리 가능한 한글자모 조합 기능을 적용해 한국어 전문성을 극대화했다. 그 결과 GPT-OSS-120B 시리즈와 동일한 파라미터 급 모델 대비 한국어 주요 벤치마크 3종 평균에서 101% 우세한 성능을 기록했다.

글로벌 성능 지표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했다. 배키는 메타의 ‘라마4 스카우

트’ 대비 주요 글로벌 벤치마크 평균에서 약 1.9배 높은 성능을 보였으며, 지시 이행 능력에서는 265%, 박사 수준 추론 능력을 평가하는 HLE 영역에서는 137%의 성능 수치를 기록했다. 한국적 맥락 이해뿐 아니라 고난도 업무 수행과 추론 영역에서도 실질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배키의 또 다른 강점은 산업 확산을 위한 효율성과 확장성이다. NC AI는 혼합 전문가 MoE 아키텍처를 적용해 모델 규모를 키우면서도 운영 효율을 높였다. 차세대 어텐션 기술인 MLA와 국소 전역 인터리빙 기법을 결합해 기존 대비 KV 캐시 메모리 사용량을 약 83% 절감했다. /최빛나 기자

CJ기프트카드, 이마트24로 사용처 확대

전국 5700여개 매장서 사용 가능

CJ기프트카드가 이마트24로 사용처를 넓히며 일상 결제 영역 확대에 나섰다.

CJ올리브네트웍스는 2일부터 전국 5700여 개 이마트24 매장에서 CJ기프트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기존 온오프라인 제휴처에 더해 편의점까지 사용처를 확대한 것으로, 일상 소비 접점을 한층 넓혔다는 평가다.

CJ기프트카드는 개인 구매자의 70% 이상이 2030세대인 점을 고려해 활용성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이번 이마트24 제휴를 통해 고객은 보다 가까운 생활 공간에서 CJ기프트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CJ기프트카드는 ONE CON을 비롯해 카카오톡 선물하기, 네이버쇼핑 등 주요 온라인 채널과 올리브영, CGV, 뚜레쥬르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최빛나 기자

반도체 대형株 수급 온도차… 개인 ‘삼성’·외국인 ‘SK’ 집중

코스피 강세장 속 투자 패턴 엇갈려
반도체 전망 긍정적… 상승여력 유효
업계 “미중갈등 등 변동성 주의해야”

8일 코스피가 전일 대비 0.03% 상승한 4552.37에 마감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행보는 엇갈렸다. 외국인들은 약 1000억원을 순매도(매도가 매수보다 많은 것)한 반면, 개인들은 1조2500억원 순매했다.

최근 ‘불장(강세장)’ 속에서 이처럼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패턴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코스피가 새해들어 4300을 돌파하고 4600까지 오르는 거래일(2~8일)간 코스피 상승을 이끈 두 대형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두고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들은 엇갈린 투심을 보였다.

◆ 외국인 개인 엇갈린 반도체주 투자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들어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로 2조3307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2~5위(종목 기준)인 삼성에프스홀딩스, HL만도, 삼양식품, 고려아연 등



코스피가 전 거래일(4551.06)보다 1.31포인트(0.03%) 오른 4552.37에 거래를 마감한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 홍보관에 지수가 표시돼 있다. /뉴시스

의 순매수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반면 같은 기간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1위는 SK하이닉스로, 순매수 규모는 9216억원에 달했다. SK하이닉스는 동일 기간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종목이기도 하다. 개인들은 이 기간 SK하이닉스를 6173억원어치 팔아치웠다. 외국인의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1조1277억원)였다.

개인 투자자들이 하이닉스 주식을 대

거 매도한 건 오랜 기간 몰려 있다가 가격 부담이 커져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직장인 오모(28)씨는 “최근 하이닉스가 80만에 다다르자 갖고 있던 주식을 모두 팔았다”며 “몇 년 전 삼성전자가 9만원 중반대를 ‘터치’한 후 5만~6만원까지 쭉 빠져서 오래 기다린 악몽이 있는데, 하이닉스도 그럴까 봐 걱정됐다”고 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삼성전자로 ‘갈

아타기’ 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출범 이후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은 144%, 하이닉스는 264%로, 약 두 배 차이 난다.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실적 전망 대폭 상향

반도체 업황은 장밋빛이다. 이 같은 전망의 배경에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있다. 제품 단가가 높은 HBM 공급이 늘어나고 범용 D램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UBS는 글로벌 인공지능(AI)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이 올해 4230억달러(약 625조원)에서 2026년 5710억달러(약 84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가 속기 수요가 늘면서 HBM 수요도 함께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맞춤형 AI 칩 자체 개발 이수도 있다. 구글의 텐서처리장치(TPU)가 대표적이다. 오픈AI는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섰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트레이니엄3’를 개발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올해 AI 칩 ‘마

이아200’을 출시한다.

외국계 투자은행과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주가를 올려잡고 있다. 맥쿼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17만5000원에서 24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8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또한 맥쿼리는 두 회사를 모두 핵심 추천 리스트인 Marquee Buy List(최선호 투자 종목군)에 포함하며 대표 투자 종목으로 제시했다.

맥쿼리는 단기간 내 이익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의 2026~2027년 영업이익 전망치는 기존 추정치보다 약 50% 상향 조정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실적 눈높이를 대폭 높이며, 순이익이 2025년 45조 원에서 2026년 101조 원, 2027년에는 14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반도체 기업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오른 만큼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권가 한 관계자는 “미중 갈등, 인공지능(AI) 거품 우려 등 시장주변을 맴도는 악재들이 많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지스운용 “AI가 투자판도 바꿀 것… ‘크로스에셋’ 본격화”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발표
‘하이브리드 캐피탈 앤 에셋’ 전략 제시

올해 부동산 투자 시장은 AI를 중심으로 한 기술 변화가 자산 가치의 판도를 본격적으로 바꾸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부동산과 인프라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크로스에셋’(Cross-Asset) 시대가 열리면서, 새로운 개념 정립과 투자 방식이 시장 선점의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지스자산운용 전략리서치실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상반기 상업용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전략리서치실은 보고서에서 2025년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국내외 불확실성과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대형화, 운영 효율화, 디지털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특히 AI를 중심



이지스자산운용 사옥 전경.

으로 인프라와 기술이 부동산 투자시장으로 연결되면서, 섹터와 자산 간 질적 양극화가 극명하게 나타난 한 해였다고 분석했다.

올해 핵심 투자 전략으로는 ‘하이브리드 캐피탈 앤 에셋’(Hybrid Capital & Asset)을 제시했다. 이는 부동산과 인프라 간 경계가 무너지는 섹터 융합이 나타나는 가운데 유연한 자본 구조와 다양한

자산군 연계 투자를 통해 수익성과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까지 불확실성이 잔존할 전망이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따른 물가 상승, 고용 지표 둔화, AI 버블론 등이 주요 모니터링 요소로 꼽혔다. 국내는 수출 호조와 내수 부진의 ‘이원화’ 현상이 뚜렷하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수출은 호조세이나, 외국인 자본 유출과 달러 강세로 인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에서는 대출 잔액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브릿지론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 금융당국 주도의 정상화·재구조화가 본격화되면서 은행권의 부실채권(NPL)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과정에서 사모대출(Private Debt) 시장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전통 은행권의 대

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발생한 자금 공백 속에서, 사모대출이 프로젝트를 완결시키는 ‘구원 투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사모대출 규모는 약 1.8조 달러에 달한다.

특히 데이터센터 시장은 자산 가치 기준이 바뀌는 흐름을 가장 뚜렷하게 보여 주는 분야다. AI 워크로드 증가에 따라 기존 서버 임대 중심의 중소형 시설에서 ‘하이퍼스케일 AI 팩토리’로 진화하고 있으며, 서울 내 부지 희소성과 전력 확보 이슈로 인해 경기 외곽 및 비수도권으로 공급이 분산되는 추세다.

전략리서치실은 2026년 상반기 투자 방향으로 ▲디지털 인프라 중심 자산 재정의 및 크로스에셋 투자 확대 ▲대출시장 유동성 공백 활용 및 유연한 자본 구조 구축 ▲부동산-인프라 연계 플랫폼 투자 및 장기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한국투자증권 ‘AI혁신산업 펀드’ 판매

한국투자증권은 손익차등형 공모펀드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를 단독 판매한다고 8일 밝혔다.

한국투자 글로벌AI혁신산업 펀드는 글로벌 혁신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주식을 선별해 집중 투자한다. AI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디지털금융, 컨슈머플랫폼, 바이오테크, AI로보틱스, 우주항공 등 7개 하위 사모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공모형 펀드로, 한국투자신탁 운용이 펀드 운용을 맡는다.

이 펀드는 고객을 선순위로, 한국투자 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를 후순위로 하는 손익차등형 펀드다. 각 하위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15%까지는 회사가 손실을 먼저 반영한다. 반대로 하위 펀드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률 10%까지는 고객과 회사가 수익을 85:15 비율로, 수익률 10% 초과 이익부터는 55:45 비율로 나눠 갖는다. 운용 기간은 3년이지만, 만기 전 수익률이 15%에 도달하면 조기상환 한다. /허정윤 기자

예탁결제원 ‘K-Camp’, 6년간 1200억대 투자 유치

6년간 308개 비수도권 창업기업 수료
“기업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이어갈 것”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비수도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K-Camp’가 6년간 누적 1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를 내며 지역 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8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K-Camp는 2019년 말 출범 이후 2025년까지 약 6년간 총 308개 비수도권 창업기업이 수료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규 고용 813명, 누적 투자유치 1189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K-Camp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내 창업 인프라 구조 속에서 비수도권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벤처투자시장 현황과 정책 과제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체 벤처기업 중 비수도권 기업 비중은 약 40%에 달하지만, 벤처투자 비중은 20% 수준에 그쳤다. 예탁결제원은 이러한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ESG 경영을 실천한다는 취지로 K-Camp를 운영해왔다.

누적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대전·충청권의 성과가 가장 두드러진다. 해당 지

역은 총 71개 기업이 프로그램을 수료해 448억7000만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하며 전체 투자유치 규모의 약 38%를 차지했다. 신규 고용도 211명으로 전체의 4분의 1 이상을 담당했다.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기반 스타트업과 기술집약 산업이 밀집된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광주·전라지역은 56개 수료기업을 통해 192억6000만원의 투자유치와 16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다. 대구·경북은 51개 기업이 참여해 167억3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신규 고용은 155명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은 59

개 기업이 수료해 144억원의 투자유치와 126명의 고용 성과를 냈다.

후발 지역인 강원과 제주도 점차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강원은 37개 기업이 참여해 54억원의 투자유치를 기록했고, 제주는 34개 기업이 수료해 183억2000만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K-Camp는 매년 일관된 성과를 내며 비수도권 특화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창업기업이 수도권과 동등한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 금 ETF 자산 1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KRX 금현물 ETF’의 순자산총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7일 종가 기준 ‘TIGER KRX금현물 ETF’의 순자산은 1조 607억원을 달성했다. 금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로 개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이어지며 순자산이 확대됐다.

해당 ETF는 지난해 개인 누적 순매수 5378억원을 기록하며, 신규 상장한 ETF 가운데 개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다.

/허정윤 기자

산업부, 공공기관 업무보고 받는다… “원팀으로 성과 창출”

12일까지 20여개 기관 집중 점검
2026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
“사회 책임 등 국민 눈높이서 볼 것”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이 20여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을 상대로 직접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원전 수출체계 개편안에 대한 검토 등 민감한 현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8일~12일까지 20여 개 공공기관 및 주요 유관기관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별 핵심 현안과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이 국민의 시각에서 신뢰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중국(상하이) 진출 소비재·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모든 업무보고는 김정관 산업부장관이 직접 주재하며, 기관장을 비롯해 차관·실장, 소관 국·과장과 실무자, 공공

기관·유관기관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국정기조에 부합한 기관별 중점 추진과제와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 대국민 소통,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도 국민 눈높이에서 살필 계획이다.

김정관 장관은 “작년에는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면, 올해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분명한 성과를 창출할 차례”라며 “산업부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서 속도감 있게 성과를 창출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 앞에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1회차 업무보고는 가스 및 원전수출 분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공사, 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이 참석했다.

가스 분야에서는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 지원 ▲AI 기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원전 수출 분야에서는 ▲베트남·체코 등 중점 국가와의 협력 ▲아랍에미리트(UAE)와의 제3국 원전시장 공동 진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한전과 한수원으로 나뉜 해외 원전사업 역할을 일원화 하는 방안도 테이블에 오른다. 다만, 이와 관련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만큼,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양쪽 의견을 듣고 장관이 이에 대한 견해를 개진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일에는 무역안보관리원, 산업기술시험원, 제품안전관리원과 한국표준협회, 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생산성본부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2회차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수

출통제 대응 및 불법수출 차단 ▲첨단 산업 시험·인증 역량 확보 ▲기술유출 방지 및 보안역량 강화 ▲AI 신뢰성 인증 개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3회차 업무보고에서는 산업단지공단, 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RE100 산업단지 조성, 지역 성장 전략, 제조업 AX(인공지능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진행되는 4회차 업무보고는 KTV를 통해 생중계되며, 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 등 자원 분야 공공기관과 코트라·무역보험공사 등 수출 분야 공공기관이 참석한다. 이 자리에서는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건전성 개선, 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 2년 연속 수출 7000억 달러 이상 달성 방안 등 자원안보와 경제활성화에 직결된 현안이 집중 점검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무보, 한국기업 미국 시장 진출 돕는다

한미은행과 업무협약 체결
美 금융 조달 불확실성 해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미국 대표 한인 금융기관과 손잡고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지원에 나섰다.

무보는 6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한미은행(Hanmi Bank)과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및 공급망 투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0월 한·미 관세협상 체결 이후 우리 기업의 현지 생산기지 구축과 공급망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현지 금융조달에 대한 불확실성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미국 진출 프로젝트에 대해 경쟁력 있는 조건의 수출금융을 공동 제공하며, 한국 기업이 현지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무보와 한미은행은 ▲미국 시장 내 수출·수주 거래 ▲공급망 투자 ▲에너지 및 신산업 분야 투자 거래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오른쪽)이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LA에서 바니 이 한미은행 행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무보

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 수요 발굴을 위한 현지 투자 정보 공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특히 우리나라 공적 수출신용기관인 무보와 기업금융에 강점을 지닌 한미은행 간 협업은 푸드·뷰티 등 K-컬처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미국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은행은 1982년 설립된 미국 최초의 한인 은행으로, 미국 9개 주에서 32

개 지점과 5개 대출사무소를 운영 중인 나스닥 상장사다. 2019년부터 한국 기업 전담 서비스 채널인 ‘코리아 데스크’를 운영해왔으며, 지난해에는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 서울 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한국 기업 지원에 특화된 역량을 갖추고 있다. LA, 뉴욕, 조지아, 텍사스 등 미국 주요 거점에는 한국 기업 대출 전담 인력도 배치돼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기후부, 해외녹색사업에 600억 출자

민간투자금 더해 1조 규모 신규 투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녹색인프라 해외수출 지원펀드(녹색펀드)에 정부자금 600억 원을 출자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녹색펀드는 정부자금 600억 원과 민간투자금이 연결돼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녹색펀드는 탄소감축·에너지전환·순환경제·물산업 등 녹색산업 분야에 특화돼, 국내에서 유일하게 해외 신규사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를 가리킨다.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녹색사업에 대해 자본 투자·대출 방식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지난 2024년 10월 모태펀드로 조성을 시작한 녹색펀드는 정부출자액 3000억 원과 민간투자 2091억 원을 합쳐 2029년까지 총 5092억 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투자로 국내 기업은 4조9000억 원 이상의 해외 수출·수출 실적 달성이 기대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또 100여 개 이상의 중소·중견 기업들도 녹색펀드가 투자한 해외 신규사업에 대기업과 함께 참여해,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이 전 세계 녹색산업 가치연계에 동반 참여하는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후부는 지난 연말 기준으로 2024년 10월부터 2년간 실제 투자 승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펀드의 투자 체계를 완성했다. 지난 연말 기준 해외 신규사업 총 5건에 대해 녹색펀드 자금 1462억 원이 투자됐다.

정부 출자 녹색펀드가 해외 신규사업에 참여할 경우, 해외 발주처 입찰에서는 사업의 안정성과 정책적 신뢰가 높아지는 효과도 발휘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진청, 베트남 농가에 K-농기계 기증

총 3종 11대 전달… 생산성 향상 기대

농촌진흥청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농가에 한국산 농기계를 지원한다. 이 지역 땅콩 농가의 생산성 제고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한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사업(KOPIA)을 통해 종자·기술·기계화까지 아우르는 ‘패키지형 농업 협력 모델’을 본격화하는 행보다.

8일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 6일 베트남 응에안성 소재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기증식이 열렸다. 기증식은 KOPIA 베트남센터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을 통해 베트남 북중부 지역 땅콩 재배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진청은 토양관리기 7대, 땅콩 탈곡기 2대, 땅콩 탈피기 2대 등 총 3종 11대



이달 6일 베트남 응에안성 빈시에 위치한 북중부 농업연구소에서 한국산 농기계 시연이 진행되고 있다.

/농진청

의 농기계를 응에안성, 하띤성, 팜빈성 등 북중부 건조지역 3개 성의 땅콩 시범 마을에 전달했다.

해당 농기계가 현장에 도입되면 밭고르기, 이랑 만들기, 비닐 피복, 수확, 탈곡까지 땅콩 재배 전 과정의 기계화 작업이 가능해진다. 작업 효율을 높이고 고령화와 농촌 인구 감소로 심화되고 있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협 임직원 성비위·호화출장 수사의뢰

농식품부, 특별감사결과 발표

농협중앙회·농협재단이 임직원 성비위 및 배임 등을 적발하고도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금을 1박에 200만 원 넘는 출장비로 쓰는 등 방만한 경비 집행 실태가 정부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법령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본 2건을 수사 의뢰하고, 향후 농협협동

조합법 개정 등을 통해 감사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는 조직 내 성비위, 배임 등 중징계에 대한 목인을 비롯해 인사의 독립성 훼손, 강호동 회장의 해외호텔 호화 숙박, 내부 통제 부재 등이 담겼다.

외부 감사위원인 이승수 변호사는 이날 언론설명회에서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는 고발이 원칙인데도 2022년 이후 징계 21건 중 범죄 혐의가 있는 6건에 대해 고발 여부를 심의할 인사위원회조차 열지 않았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6건은 성비위와 업무상 배임으로, 6건 모두 다른 직원이며 성비위 사건의 피해자도 모두 내부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제재가 시작되는 사전처분통지를 내릴 계획이다.

강호동 농협회장의 경우,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상한이 1박 250달러(36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200만 원 넘는 5성급 스위트룸 등에 숙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감사담당관은 “5차례 해외 출장에서 1박당 상한보다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186만 원까지 초과 집행했다”며 “조과(집행)된 부분 환수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What Makes A Truly Comfortable & Trustworthy Sleep



50년을 지나, 이제 당신의 일상이 됩니다.

 **그랜드침대**

편안함의 전통, 그랜드침대의 품격으로 완성됩니다.

www.grandbed.com / Tel. 031-945-2233



수능·내신 5등급 절대평가 되나 국교위, ‘대입제도 개편안’ 논의

전문가 토론내용 담은 연구보고서
시도교육청에 참고자료로 전달

현행 평가 체계의 한계 지적
과도한 경쟁 구조 개선 필요
정책 결정 전 논의지속 전망

대학입시 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둘러싼 논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능력시험과 학교 내신 성적을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전문가 논의 자료에 담겼다.

8일 교육계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출범 이후 약 4개월간 진행한 전문가 토론 내용을 정리한 ‘공교육 혁신 보고서’를 최근 각 시도 교육청에 공유했다. 해당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개선과 사교육 문제 완화 등 9개 분야의 혁신 과제를 담고 있으며, 공식 정책안은 아니지만 향후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검토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는 현행 대입 제도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수능과 내신 평가 방식을 모두 5등급 절대평가 체제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됐다. 구상에 따르면 수능의 경우 1등급 기준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설정하고, 각 등급의 목표 비율을 20% 수준으로 맞추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평가 신뢰도 저하와 성적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보완 장치도 함께 논의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지난해 11월 13일 서울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다. 1등급의 상한을 30%까지 허용하되, 목표 비율을 초과한 20~30% 구간의 학생에게는 ‘1-’ 등급을 부여하는 보조 등급제를 도입해 성적 불평리기를 억제 하자는 취지다. 내신 성적 역시 동일한 방식의 5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거론됐으며, 단위학교별 평가 운영에 대한 관리·점검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대입 전형 구조와 관련해서는 수시와 정시를 분리 운영하는 현행 체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 대상에 올랐는데, 이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그동안 주장해 온 대입제도 개편 방향과도 맞아 있다.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각각 가군과 나군으로 나눠 동시에 선발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서울 주요 대학에 적용 중인 정시 40% 선발 지침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이와 함께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심화한 통합사회Ⅱ·통합과학Ⅱ 신설, 탐구 과목 선택 수 확대, 장기적으로는 대학 체제 개편 이후 대입자격고사로의 전환 가능성 등도 보고서에 담겼다.

다만 국교위는 이번 보고서가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 결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 논의 내용을 정리한 연구 성격의 자료로, 구체적인 제도 도입 여부나 시행 시점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 10일 서울시교육청 기자회견에서 정근식 교육감은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전환, 수시·정시 통합 등 입시제도 개편 방향을 제시하며 “이 같은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교육계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 달성

높은 할인율·가맹점 확대 주요
시민 일상 소비수단으로 정착

광명시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가 누적 발행액 1조 원을 돌파하며 광명시 대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지난 1일 기준 광명사랑화폐 총 누적 발행액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첫 발행 이후 약 7년 만에 거둔 성과다.

특히 경기도 31개 시군 중 인구 30만 미만의 지방정부가 지역화폐 발행액 1조 원을 달성한 것은 광명시가 최초다.

광명시는 지난 7년간 약 1조 6억 원(2026년 1월 1일 기준)을 발행했으며, 인구 29만 1천423명(2025년 11월 기준) 기준으로 매년 시민 1인당 약 49만 500원의 지역화폐가 발행된 셈이다.

시는 이러한 성과의 배경으로 ▲연중 10% 이상의 높은 할인율 유지 ▲8천 100여 개 가맹점 확대 ▲2025년 10월부터 도입된 소비 촉진 캐시백 제도 등 지역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한 일관된 정책

추진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초 광명시가 전 시민 대상으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며 시민들의 이용 경험을 대폭 확대한 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으로 지역화폐를 선택한 비율이 1차(54.3%)와 2차(55.7%)로 경기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광명사랑화폐가 시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사랑화폐 누적 발행액 1조 원 달성은 시민이 지역에서 쓰고 소상공인이 다시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광명사랑화폐가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힘이 되고, 지역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끄는 든든한 경제 엔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광명사랑화폐 정책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시민과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명(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인천, 첨단 메디컬·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연세대 양자연구·송도세브란스 연계

인천시(시장 유정복)와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양자·바이오·메디컬 혁신 클러스터’ 조성에 첫걸음을 내디뎠다.

유정복 시장과 윤 총장은 8일 연세대 국제캠퍼스에서 면담을 갖고 송도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 수준의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양자 알고리즘·응용 연구를 선도하는 연세대 양자사업단과 송도세브란스병원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신약 후보 물질 발굴 및 바이오 데이터 프로세싱 개선 ▲산학연 협력 강화 ▲송도세브란스병원 조속한 개원 ▲글로벌 양자·바이오 기업 유치 ▲국가 양자 R&D 사업 유치 협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8일 연수구 송도 세브란스병원 건설현장을 찾아 윤동섭 연세대학교 총장과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800병상 규모의 첨단병원 송도세브란스병원 개원에 뜻을 같이하고, 필요한 추가 건축비는 연세대와 송도국제회복합단지개발(주) 기존 합의 기준에 따라 마련하기로 했다. 면담 후 양측은 양자컴퓨팅센터와 병원 건립 현장을 방문해 협력 과제를 구체적으로 점검했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 민간임대로 전·월세 불안 잡는다

LTV·세제 규제로 신규 공급 위축
청년·1~2인가구 주거 안정에 방점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정부의 수요 억제책 여파로 매매시장을 넘어 전·월세시장 전반에 불안이 확산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민간 임대 를 통해 주택공급 솟음 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호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을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그동안 전월세시장 안정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하지만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오세훈 서울시장의 지난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 재건축 공사 현장을 찾아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 100%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에 포함되며 매입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가 제외돼 임대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다. 여기에 내년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2만9000호에 불과해 공급여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정부 규제로 매매시장은 위축됐고 전세매물 또한 2024년 11월 3만3000건에서 지난해 11월 2만5000건으로 25% 감소했다. 반면, 전세 가격은 작년 10월 0.53%, 11월 0.63%로 9월 0.

27% 이후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금융지원 ▲건축규제 완화 ▲임대인·임차인 행정지원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 건의 등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등록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비아파트에 양질의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고 민간임대를 통해 무너진 시장을 되살리겠다고 강력하게 밝힌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첫 행보로 오세훈 서울 시장은 8일 오전 10시 30분 마포구에 위치한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방문해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와 입주민들을 만나 청년층을 비롯한 1~2인 가구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 논의에 나섰다.

맹그로브는 서울내 4개 지점을 운영하는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다. 2023년 준공한 신촌 지점은 165개실에 277명이 거주 중이다.

오 시장은 현장 목소리 청취 후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덕성여대 혁신 중심은 ‘학생성공’”

김종길 총장직무대리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덕성여자대학교(총장직무대리 김종길)는 7일 오전 10시 서울 강북구 소재 안토그래프볼룸에서 ‘2025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포럼: 함께 그리는 덕성 혁신’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대학이 지향해야 할 혁신 방향을 함께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교내 혁신 성과의 파급과 확산을 통해 대학 혁신에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포럼에는 교수·학생·직원 등 교내 구성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김종길 총장직무대리는 축사를 통해 “덕성 혁신의 중심을 ‘학생성공(Student Success)’에 두고, 입학부터 성장, 진

료, 취업, 졸업 이후 도약까지 이어지는 학습 여정을 촘촘히 뒷받침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또한 “성과가 대학 전체로 확산될 때 혁신이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성과 확산(Scaling Up)과 데이터 기반(Data-driven) 운영, 글로벌(Global) 확장을 혁신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덕성여대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평가에서 2년 연속 S등급(교육혁신 영역)을 획득하는 등 혁신 성과를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또한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8년 2월 28일(3년)까지 추진되며, 교육혁신 중심의 선택과 집중, 학생 맞춤형 전공탐색·설계 지원 등으로 혁신 전략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판... ‘할인·맞춤형·프리미엄’ 차별화

롯데 ‘미식’ 트렌드 상품 선택
신세계 10~30만원대 라인업 강화
현대 200여종 최대 30% 할인
갤러리아 프리미엄 상품 확대

국내 주요 백화점들이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나섰다. 이번 설은 2월 17일로 예년보다 다소 늦지만, 고물가와 내수 침체가 지속되면서 합리적인 가격에 선물을 미리 준비하려는 ‘얼리버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백화점 4사는 사전 예약 물량을 대폭 늘리고 최대 70%에 달하는 할인 혜택을 앞세워 고객 잡기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9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전 점포에서 설 선물 사전 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축산, 수산, 청과 등 약 170여 개 품목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롯데백화점은 이번 행사의 핵심을 ‘고객 맞춤형 큐레이션’에 뒀다. 1~2인 가구 증가 트렌드에 맞춰 한우 소포장 상품 물량을 지난 설 대비 25% 늘렸으며, 다양한 부위를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혼합 구성도 20% 확대했다.



롯데백화점은 25일까지 설 선물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백화점

특히 ‘미식’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 상품이 눈에 띈다. 한우와 트러플 등을 함께 구성해 지난 명절 큰 인기를 끈 ‘한우&트러플 오마카세 기프트(24만 원)’ 물량을 20% 늘렸고, 대치동 유명 반찬 가게 ‘맛있는 찬’과 협업한 ‘프리미엄 한상 차림’ 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또한, 지난해 완판 기록을 세운 ‘배우 김희선 와인’의 추가 물량을 확보해 10% 할인가에 내놓는 등 주류 라인업도 강화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총 490여 품목에 대한 예약 판매를 실

시한다. 신세계는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10~30만원대 국민 선물 라인업 강화에 주력했다. 유통 단계를 줄여 가격 경쟁력을 높인 ‘신세계 압소 한우’ 물량을 30% 늘렸으며, 대표 상품으로 ‘신세계 압소 한우 다복(24만1800원)’ 등을 내세웠다.

청과 부문에서는 바이어가 직접 산지를 발굴하는 ‘신세계 셀렉트팜’을 통해 이색 과일인 태국산 망고 세트(6만7500원)를 새롭게 선보인다. 와인 역시 최대 60% 할인율을 적용해 품목을 대폭 늘렸으며, SSG닷컴과 비온드신세계 등 온라인



현대백화점은 한우 등 200여종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

인 채널에서도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적립금을 제공해 실질적인 체감 물가를 낮췄다.

현대백화점도 이달 9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한우, 굴비, 청과 등 인기 선물세트 200여 종을 최대 30% 할인한다. 현대백화점은 기업 및 개인 고객의 조기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약 판매 물량을 지난해보다 20%가량 늘렸다.

주요 상품으로는 ‘현대 한우 소담 국세트(31만원)’, ‘영광 특선 참굴비 난 세트(15만5000원)’ 등이 있다. 온라인 채널

혜택도 강화해 공식 온라인몰 ‘더현대닷컴’에서는 현대백화점 카드 결제 시 최대 5% 추가 할인을, ‘현대H몰’에서는 구매 금액대별 최대 10% 적립금과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달 14일부터 28일까지 예약 판매를 진행하며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한다. 약 300여 종의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갤러리아는 한우, 전복 등 최상급 식재료를 한상차림으로 구성된 ‘갤러리아 시그니처 선물세트’를 필두로, 1++ 등급 중에서도 마블링 스코어 9등급에 해당하는 최고급 부위만 선별한 ‘9+ 한우’ 세트 등 갤러리아만의 독보적인 프리미엄 상품을 대거 선보인다. 이 외에도 세계 3대 진미인 캐비어, 한정판 꿀 등 이색 선물세트로 차별화를 꾀했다.

롯데백화점 양성진 신선식품부장은 “2026년 병오년의 활기찬 기운을 담아 백화점의 본질적인 경쟁력인 ‘큐레이션 기능’을 강화했다”며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중심으로 고객의 선택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경영진 구속영장 청구, 회생 위태롭게 만들어” 롯데마트 제타, ‘올바른 우리집 장보기’ 행사

홈플러스 회생절차

M&A 등 경영 정상화 차질 우려
“무리한 구속보다는 해법 마련해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검찰의 관리인 및 대주주(MBK파트너스) 주요 관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회생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위태롭게 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8일 홈플러스는 입장문을 내고 “당사 관리인과 임원, 주주사 주요 경영진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핵심 혐의로 보고 있는 ‘매입 채무유동화 전자단기채권(ABSTB)’ 발행과 관련해 홈플러스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회사 측은 “문제가 된 ABSTB는 신영증권이 별도의 신용평가를 거쳐 독자적으로 발행·판매한 금융상품”이라며 “홈플러스는 발행이나 재판매에 관여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뉴스1

한 바 없으며, 주주사 역시 이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홈플러스는 이번 회생절차 개시가 고의적인 기획 부도가 아닌,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회사 측은 “예상치 못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운전자금 확보가 불가능해져 부도를 막기 위해 신청한 것

이라며 “사전에 이를 예견하거나 준비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홈플러스는 현재 진행 중인 인가전 M&A(인수합병) 등 경영 정상화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말 구조혁신형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 측은 “현 관리인은 법원, 채권단, 정부 등과 협의를 이끌며 매각 절차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인물”이라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회생절차 전반의 중단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홈플러스 임직원 2만명과 협력업체 종사자 등 약 10만명의 생계가 회사의 정상화에 달려 있다”며 “무리한 구속보다는 경영진이 정상화 작업을 마무리하고 해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적 피해를 줄이는 길”이라고 호소했다.

/손종욱 기자

돼지고기·과일 등 먹거리 할인

롯데마트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제타(ZETTA)’가 새해 고물가 시대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규모 먹거리 할인전에 돌입한다. 롯데마트 제타는 이달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올바른 우리집 장보기 ZETTA’ 행사를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돼지고기, 과일, 전복 등 가정에서 수요가 높은 핵심 식재료를 엄선해 합리적인 가격에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우선 주요 신선식품을 파격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겨울철 대표 과일인 ‘스마트팜 딸기(220g)’와 ‘제주 타이백 감귤(2kg)’을 각각 4990원, 1만990원에 선보이며, 보양 식재료인 전복(25미)은 정사가 대비 50% 할인된 1100원에 제공한다. 오는 11일까지는 국내산 냉장 삼겹살과 목심을 약 30% 할인해 100g당 1990원에 준비했다.

온라인 전용 테마 행사도 다양하게 마

련했다. 매일 선정된 품목을 초특가에 판매하는 ‘오늘특가’를 통해 바나나(8일), 양배추(9일), 1등급 우유(12일) 등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또한 ‘제타카세’ 코너에서는 샐러드 및 드레싱 제품을 20% 할인하며, ‘Z프라이스’에서는 요거트류 40여 종을 199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구독형 유료 멤버십인 ‘제타패스’ 회원에게는 더 강력한 혜택이 주어진다. 정지선 셰프와 협업한 ‘목화숨탕수육’과 정호영 셰프의 ‘카키야게 우동’ 등 인기 간편식을 단독 특가에 구매할 수 있으며, 풀무원 제품 4만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제타패스는 월 2900원에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제한 무료배송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마트·슈퍼 정재우 eGrocery 사업단장은 “고객들이 부담 없이 온라인 장보기를 즐길 수 있도록 가격과 신선도, 편의성을 모두 잡은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혜택으로 온라인 장보기 경쟁력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아워홈, ‘편스토랑’ 협업 날개... 온라인몰 매출 2배 ↑

전년비 가입자 109%·매출 111% 증가

아워홈은 올해 4~12월 자사 온라인몰 ‘아워홈몰’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간편식 제조 경쟁력 강화를 알리기 위해 진행한 KBS2 ‘신상출시 편스토랑’ 협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아워홈은 B2C 사업 강화와 매출 다각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2025년 ‘편스토랑’의 공식 파트너사로 참여했다. 제조 노하우와 전국 8개 생산시설과 14개 물류센터를 아우르는 독보적인 제

조·유통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여, ‘편하게 즐기는 집밥 레스토랑’ 콘셉트의 신제품을 매달 출시하며 차별화된 간편식 생산 역량을 입증했다.

이같은 전략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방송 노출 이후 자사몰 유입과 구매 전환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지난 4월 첫 방송 이후 12월까지 아워홈몰 신규 가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으며, 매출은 111% 성장했다.

편스토랑 제품 카테고리 매출은 아워홈몰 전체 매출의 약 18%를 차지하며 실질 성장을 견인했다. 협업 효과는 편

스토랑 제품에 국한되지 않고 기존 핵심 제품 판매로 확산됐다. 아워홈 대표 간편식인 ‘온더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2% 급증했으며, ‘국·탕·찌개’ 제품군 역시 163%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아워홈 관계자는 “방송과 연계한 메뉴 개발 방식이 소비자의 참여와 선택 경험을 확대하며 콘텐츠에 대한 몰입도를 높였고, 자사몰 유입과 구매 전환으로 이어졌다”며 “향후에도 미디어·콘텐츠 협업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하고 아워홈의 간편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PC삼립, ‘삼립호떡’ 신제품 2종 출시

SPC삼립의 ‘삼립호떡’이 단팥크림과 소보루 토핑을 활용한 신제품 2종(사진)을 출시했다.

1974년 출시한 삼립호떡은 길거리 음식으로 즐기던 호떡을 가정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SPC삼립은 익숙한 제품을 색다르게 경험하기를 원하는 MZ세대 취향을 반영해 이번 신제품을 기획했다.

신제품은 국내산 벌꿀이 함유된 꿀 필링을 베이스로, 크림이나 토핑 등을 더



한 풍미를 살린 ‘소보루꿀호떡’ 등 2종으로 구성됐다. 제품은 대형마트, 편의점, 온라인 채널에서 구매할 수 있다.

/신원선 기자

효자된 ADC... 국내 바이오, 기술수출 수익화 결심

(항체·약물접합체)

리가켄바이오 오노약품서 성과 개발 진전에 따른 추가 기술료 에임드바이오 베링거인겔하임 1.4조 규모 기술이전 계약 체결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첨단 바이오의약품 영역인 항체·약물접합체(ADC) 등에서 기술수출에 따른 마일스톤 수령으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다.

8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일본 오노약품공업으로부터 항체·약물접합체(ADC) 플랫폼 기술이전에 따른 개발 진전 마일스톤을 추가 수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모와 세부 사항은 양사 간 계약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리가켄 바이오는 2024년 10월 오노약품공업과 ADC 신약 후보물질 'LCB97', ADC 플랫폼 'LCB78A' 등에 대한 두 건의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양사는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가 독자 구축한 ADC 원천 기술 '컨쥬얼'을 활용한 공동 연구 계약을 맺었다.



에임드바이오 연구원이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에임드바이오

이번 마일스톤 추가 수령은 해당 계약의 후속 성과다. 앞서 지난해 3월에는 첫 마일스톤을 거뒀다. 당시 첫 번째 타겟 지정을 완료했고 이후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고 있는 ADC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리가켄 바이오는 글로벌 제약사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력을 입증받고 있어 개발 성과와 마일스톤 창출이 지속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노약품 외에도 영국파트너사 의수

다 테라퓨틱스의 경우, 올해 상반기 ADC 항암제 후보물질 'LCB14' 임상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CB14는 리가켄이 의수다와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파이프라인으로 향후 다음 단계 임상 진입 및 마일스톤 달성이 가시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리가켄 바이오는 지난해 3분기에는 기술수출 매출만 364억원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수준이다. 3분기까지 누적한 기술수출

매출 규모는 1101억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이다. 리가켄 바이오는 기술수출 매출은 2022년 131억원, 2023년 128억원, 2024년 1054억 등으로 커졌다.

ADC 전문기업 에임드바이오도 연이은 기술수출로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에임드바이오는 지난해 10월 글로벌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과 최대 1조 4000억원 규모의 ADC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선금금을 비롯해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 매출 기반 로열티 등을 확보했다. 구체적인 선금금과 세부 조건은 비공개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국내 혈액제제 기업 SK플라스마와의 'AMB303'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라이선스 계약 상 에스케이플라즈마의 라이선스 인 옵션 행사에 따라 관련 기술료를 수령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한편 에임드바이오는 지난해 12월 4일 코스닥 시장 상장 성공해 상장 첫날 2조8229억원의 시가총액 기록, 둘째날 시가총액 3조6697억원 돌파 등을 기록했다.

오는 1분기 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신약 전문 기업 카나프테라퓨틱스도 ADC를 포함한 기술사업화 모델로 성장 기반을 다진다.

카나프테라퓨틱스는 2019년 2월 설립 후 지난 6년간 5건의 신약개발 과제에 사업화 실적(총 계약금 159억원, 총 계약규모 7748억원)을 냈다. 이 중 ADC 과제는 2건으로 각각 국내 제약사 GC녹십자,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롯데바이오로직스와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다.

최근 GC녹십자는 카나프테라퓨틱스가 보유한 ADC 기술에 대한 옵션을 행사했고 롯데바이오로직스와는 ADC 핵심 요소인 '링커' 관련 플랫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카나프테라퓨틱스 측은 "조기 기술이전 사업화 모델을 통해 연구개발 효율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입증해 왔다"며 "차세대 ADC 치료제, 이중항체 면역항암제 등 고형암 환자의 미충족 의료 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새해 운동 결심 돕는 '식단관리' 제품 쏟아져

정식품 섭취 간편한 '프로틴밀' CJ제일제당 당 낮춘 '닭가슴살' SPC삼립 건강한 식단 '마녀스프' 청정원 완성도 높은 '훈제메추리알'

새해를 맞아 건강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단순히 체중 감량이나 단기 다이어트에 그치지 않고, 식단·운동·생활습관을 장기적으로 관리하려는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특히 개인의 건강 관리 역량을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식품 소비 패턴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소비자들은 병원 치료 중심의 사후 관리보다 일상 속에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셀프 헬스케어(Self Healthcare)'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고물가·고령화·1인 가구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 과도 맞물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프로틴밀, 더 건강한 저당 닭가슴살, 마녀스프, 고소한 훈제 메추리알

/각사 제공

린다. 외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에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영양 균형을 갖춘 제품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정식품은 단백질과 에너지 보충을 동시에 고려한 '그린비아 프로틴밀 ACTIVE' 2종을 통해 기능성 음료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 제품은 운동 후 회복과 일상 속 영양 보충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 특징이다. 한 팩(250ml) 기준 동·식물성 혼합 단백질 20g과 함께 B

CAA, 필수아미노산을 함유했으며, 당류는 1g으로 낮췄다.

CJ제일제당은 단백질 식품 소비가 '의무적 섭취'에서 '일상식'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The더 건강한 저당 닭가슴살'은 저당 설계와 함께 소스를 적용해 맛 경쟁력을 강화한 제품이다.

SPC삼립의 웰니스 브랜드 '피그인 더가든'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된 '마녀스프' 트렌드를 간편식 형태로 구현했다. 다양한 채소를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강 식단으로 주목받은 마녀스프를 가정간편식(HMR)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대상 청정원은 간식 시장에서도 '고단백·간편 섭취' 트렌드에 주목했다. '고소한 훈제메추리알'은 실온 보관이 가능해 휴대성을 높였고, 훈연 공정을 통해 간식으로서의 맛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식품·화장품 속 나노입자, 태아 뇌에 영향

韓생명공학연구원 이미옥 박사 연구팀 중뇌,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부위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에 불과한 나노물질이 실제로 태아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나노물질이 태아에 전달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실제 뇌 구조와 발달 과정으로 증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줄기세포융합 연구센터 이미옥 박사 연구팀은 국가독성과학연구소 이향에 박사팀과 공동으로 인간 줄기세포 유래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기존 동물·세포 실험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인간 뇌 발달 초기 과정에서의 변화를 분석하여 실리카 나노입자가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

연구팀은 실제 장기의 구조와 발달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뇌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몸의 움직임과 감정 조절에 중요한 중뇌가 도파민 신경세포가 자라

며 작은 환경 변화에도 민감한 부위라는 점에 주목했다.

뇌 오가노이드가 자라는 초기 단계에 실리카 나노입자를 노출한 결과, 세포가 대량으로 죽거나 사라지는 등 외형적으로 뚜렷한 이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뇌의 바탕이 되는 세포들의 증식이 줄어들고 도파민 신경세포로 자라는 과정이 약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뇌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간 신호 전달과 신경세포 간 소통이 전반적으로 약해지고, 그 결과 신경세포들이 서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는 변화가 관찰됐다.

이와 함께 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이 필요 이상으로 활성화되면서 염증과 관련된 신호가 증가하는 현상도 확인됐다.

이러한 변화들은 즉각적인 손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뇌 발달의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용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강력한 톤업 효과 'PDRN-나이아10' 출시

프리메라 흔적 잡티 2.4% 개선

아모레퍼시픽은 고효능 저자극 브랜드 프리메라에서 'PDRN-나이아10' 제품군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들은 초저분자 PDRN과 고함량 나이아신아마이드 10%를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PDRN-나이아10 토닝 글로우 세럼(사진)'은 잡티는 지워주고 물광은 채워주는 제품이다. 모공보다 약 1400배 작은 프리메라만의 초저분자 PDRN을 함



유해 피부 속부터 관리해 준다. 인체적용시험에서 2주 사용 후 진한 흔적잡티가 2.4% 개선됐고 피부 투명도와 피부 톤 균일도에서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PDRN-나이아10 세럼 메가 샷 겔마스크'는 주요 성분을 세럼 한 병 수준으로 함유한다. 특히 해당 성분을 지지체나 불순물 없이 그대로 굳혀 만들었다.

/이청하 기자

에이피알 병역지정업체 선정

에이피알이 최근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26년 병역지정업체'로 신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병역지정업체는 병역법에 근거해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병역의무자는 군 복무 대신 지정업체에서 연구 인력으로 복무할 수 있다. 해당 지정업체는 연구개발 역량, 연구 환경, 전문연구요원 관리 능력 등에 대한 종합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이청하 기자

혈압 측정 반지 '카트' 유럽인증 획득

스카이랩스 글로벌 진출 박차

스카이랩스는 반지형 혈압계 '카트 플랫폼(사진)'이 최근 유럽연합(EU)의 의료기기 규정인 CE-MDR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광용적맥파(PPG) 감지 기능이 탑재된 반지형 의료기기, 모바일 앱, 의료진용 웹 뷰어 등으로 구성된 '카트 플랫폼' 전반에 적용됐다.

카트 플랫폼은 혈압, 불규칙한 맥파 등 다양한 생체 신호를 모니터링 하는



데 쓰인다.

환자가 반지형 의료기기를 착용하면 생체신호

가 측정되며 수집된 데이터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환자에게 제공되고 의료진은 웹 기반 뷰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커프 방식으로 24시간 혈압을 측정했던 불편한 검사 방식을 보완하고 환자 착용 편의성을 개선해 혈압 관리를 효율적으로 돕는다.

/이청하 기자

대학로 NO.1 여성전용 화이트코미디 쇼뮤지컬

MUSICAL

헝키쇼

2025.11.28 ~ OPEN | 대학로 스타스테이지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공연
#겨울엔 헝키쇼에서 뜨겁게!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여자들만의 #연말파티

할인받고
헝키쇼 보러가기

NOL ticket 평점 10점 공연! 재관람율 100%

k9872**님

★★★★★

어머니께 찐 효도하고왔어요!!^^

와~ 진짜 그런 찐 행복한 표정 처음 봤습니다.
엄마가 공연 끝나고 저에게 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효도 다 했다!! ㅋㅋ 너무 고마워 ㅋㅋㅋㅋㅋㅋ
엄마도 여자라는 사실!!^^

arri***님

★★★★★

눈호강 제대로 하고온 날!!!!!!

어머니께 평생 잊지못할 기억을 남겨드렸다.
엄마랑 이런 뮤지컬 관촬나..? 싶었는데
안봤으면 죽을때까지 땅 치고 후회할 뻔!!!

queeno***님

★★★★★

스트레스 뺀!! 도파민 엔돌핀 뿜뿜

최근들어 이렇게 웃어본적이 언제인가 싶네요.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났어요. 관객참여형이라 더 좋았고
열정적인 춤사위는 아이돌가수의 춤을 보는듯 했어요.



카메라를 켜서 스캔해보세요!

KETI 지원 기업제품, ‘CES 2026’ 혁신상 20개 수상

지난해 19개 수상 넘는 역대 최대 기록
선제적 연구개발 투자 가시적 결실
엘비에스테크 ‘MaaS-Bridge’ 주목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이 지원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혁신상 20개를 수상하며 역대 최대 기록을 세웠다.

KEIT는 8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한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9개 수상을 넘어서는 성과로, 산업통상부와 KEIT의 선제적 연구개발(R&D) 투자가 글로벌 무대에서 가시적 결실을 맺었다는 평가다.

가장 주목받은 기술은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시각장애인 보행 내비게이션 ‘MaaS-Bridge’다. 일반 지도에는 없는 ‘계단 없는 길’, ‘보도 턱 위치’ 등의 정보를 수집·분석해 교통약자에게 최적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KEIT R&D 지원을 받은 국내 기업 제품 총 20개가 혁신상을 수상했다. /KEIT

의 이동 경로를 안내하는 기술로, 기술적 혁신성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인정받아 CES 최고 영예인 ‘최고혁신상’을 수상했다.

AI 반도체 팹리스 기업 딥엑스는 저전력·고효율 AI 반도체 기술로 혁신상을 받았다. 글로벌 경쟁사 대비 전력 소모를 대폭 낮추면서도 높은 처리 성능을 구현해, 서버 연결 없이 현장에서 즉각

적인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온디바이스(on-device) AI 기술을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자 의수 개발 기업 만드로는 실제 손과 유사한 정교한 움직임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로봇 손 ‘Mark 7X’로 혁신상을 수상했다. 손목 근육의 움직임과 압력을 센서로 감지해 손가락을 개별 제어할 수 있어, 기술을 통한 사회적 약자 지

원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됐다.

KEIT은 이번 CES 2026에서 ▲ATC + 공동관 ▲센서·파워반도체관 ▲휴머노이드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관 등 총 3개 분야의 공동관을 운영하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했다.

또 현장 부스를 직접 방문해 기업들을 격려하는 한편, 글로벌 시장 진출과 사업화 과정에서 겪는 규제 및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전윤종 KEIT 원장은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CES 혁신상 수상은 우리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과 도전 정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의 혁신 성과가 수출 확대와 판로 개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남동발전, ‘KOEN 펜싱 실업팀’ 창단

한국남동발전이 지역 스포츠 저변 확대와 우수 선수 육성을 위해 펜싱 실업팀 창단에 나선다. 남동발전은 지난 7일 경남 창원시 경상남도체육회에서 강기훈 남동발전 사장, 김오영 경상남도체육회 회장, 정재규 경상남도펜싱협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KOEN 펜싱 실업팀’ 창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남동발전



HD현대마린솔루션, 동반성장펀드 조성

HD현대마린솔루션은 지난 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HD현대글로벌R&D센터에서 IBK기업은행과 ‘공급망 ESG동반성장펀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부터)HD현대마린솔루션 김정혁 경영지원부문장, IBK기업은행 이대성 본부대기업금융센터 본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HD현대

LG U+, 버킷리스트 행사 4만명 참여

‘심플리 유플러스’ 브랜드 캠페인
가족·도전 등 최종 5인 사연 선정

LG유플러스는 ‘심플리 유플러스(Simply. U+)’ 브랜드 캠페인 일환으로 진행한 버킷리스트 이벤트가 2주간 약 4만 명의 참여를 기록하며 마무리됐다고 8일 밝혔다. 최종 선정된 5인의 사연과 소원이 실현되는 과정은 LG유플러스 공식 SNS 채널을 통해 공개된다.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자신의 소원과 사연을 접수하면, 이를 바탕으로 선정된 고객의 바람을 실제로 이뤄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일상 속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까지 2주간 진행된 이번 이벤트에는 총 4만1736건의 사연이 접수됐다. 소원 유형을 분석한 결과, 본인을 위한 소원이 73%로 가장 많았고 가족을 위한 소원 25%, 친구·

동료를 위한 소원 1%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여행·휴식이 4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가족·효도(36%), 경험·도전, 건강·자기관리, 재정 관련 소원이 뒤를 이었다. 사연에 담긴 주요 감정 키워드로는 ‘도전’, ‘성취’, ‘보상’ 등이 두드러졌다.

LG유플러스는 접수된 사연 가운데 ▲아버지의 웃음을 되찾고 싶다는 가족 사연 ▲개인 작품 전시를 꿈꾸는 도전 사연 ▲다문화 학생들을 응원하는 간식차 지원 요청 ▲어머니의 호프집을 연말 분위기로 꾸미고 싶다는 사연 ▲택배 업무로 힘든 배우자를 위한 여행 선물 등 5건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이벤트는 LG유플러스의 통합 앱 ‘유플러스원(U+one)’을 통해 진행됐다. U+one은 MY, 스토어, 혜택, 플러스, AI 검색 탭 등을 통해 고객이 주요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롯데칠성음료, 일상 속 친환경 알린다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
출시 기념 공식물 게임행사 진행

롯데칠성음료가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 출시를 기념해 공식 온라인 직영몰 ‘칠성몰’에서 1월 31일까지 ‘MR.펫권의 지구별 대모험’ 게임 이벤트를 진행한다.

롯데칠성음료가 지난 10월 국내 최초로 선보인 100% 재생 MR-PET 칠성사이다는 페플라스틱에 열을 가해 재성형한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 만든 제품으로 이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일상 속에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게임을 제작했다.

‘MR.펫권의 지구별 대모험’ 게임은

지난 10월 공개된 MR-PET 칠성사이다 광고 캠페인 ‘펭귄 편’과 이어지는 콘셉트로 용기를 내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드는 펭귄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 칠성사이다 별을 타고 모험을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100% 재생 페트를 뜻하는 MR-PET의 MR과 펭귄을 합친 ‘MR.펫권’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친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재미있게 전달한다.

게임은 방향 키와 점프 키를 사용해 펭귄이 얼음 위로 도약하며 더 높이 올라가도록 조종하는 방식이다. 게임에서 칠성사이다와 별을 모으면 게임 시간이 연장되거나 부스터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으며 펭귄이 높이 올라간 순위에 따라 경품이 지급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정신아 카카오 의장, 신입 크루와 소통

카카오그룹은 지난 7일 경기도 용인시 카카오 AI캠퍼스에서 정신아 의장(사진 가운데)이 신입 공채 크루들과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의장과 대화·파이어사이드 챗’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정신아 의장은 이 자리에서 신입 크루들에게 ‘AI 네이티브 인재’로 성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카카오



삼성바이오,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후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창의재단 및 한국생물교육학회와 함께 ‘국제생물올림피아드’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왼쪽 두번째부터)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이사 김경아 사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경영지원센터장 유승호 부사장 등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BGF리테일, 협력사 동반성장 경영 특강

BGF리테일은 지난 7일 서울 강남구 BGF사옥 대강당에서 전국 50여 개 협력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협력사 초청 동반성장 경영 특강’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트렌드 분석가인 김용섭 날카로운상상력연구소장이 연사로 나서 ‘2026년 소비 트렌드와 시장 변화’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BGF리테일

인사

◆ **KCGI자산운용** ◇승진 <전무> △주식운용본부장 김홍석 <상무보> △채널마케팅본부장 이지숙 <이사대우> △상품전략팀장 송정순

◆ **동행미디어시대** △사장 오병상

부음

▲ 이상진씨 별세, 이은희(수원가정법원장)씨 부친상, 최창범(중앙대 교수)씨 장인상=8일, 포항세명기독교병원장례식장 5층 특실, 발인 10일 오전 11시, 장지 포항시립우현화장장(영덕남산선영), 054-275-0005.

‘韓 퍼스트브랜드 대상’ 18년 연속 수상

하이트진로음료는 자사의 먹는샘물 ‘석수’가 ‘2026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서 먹는샘물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로써 18년 연속 수상을 이어가며, 국내 먹는샘물 시장을 대표하는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한국경제신문사와 한국소비자포럼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은 소비자 조사를 기반으로 각 산업군에서 한 해를 대표할 것으로 기대되는 브랜드를 선정하고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브랜드 어워즈다. 매년 대규모 소비자 참여 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통해 브랜드 기대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석수는 장기간 축적된 브랜드 신뢰도와 안정적인 제품 운영을 바탕으로 먹는샘물 부문에서 소비자 평가 전반에 걸쳐 고른 점수를 받으며 최종 선정됐다. 특히 18년 연속 수상 브랜드로 이름을 올렸던 점에서 국내 먹는샘물 시장을 대표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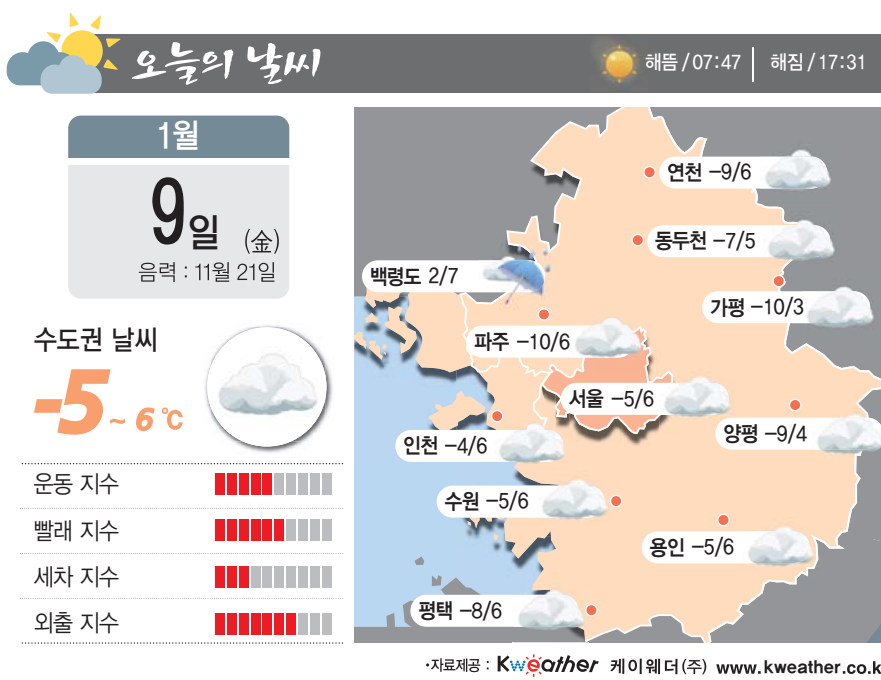
하이트진로음료 ‘석수’가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에 18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하이트진로음료

는 상징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았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석수는 1982년 출시된 이후 안정적인 품질 기준과 일관된 브랜드 운영을 통해 오랜 기간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까다로운 품질 기준을 인증 받았으며, 세계적 식품 품평회인 몽드셀렉션(Monde Selection)에서는 8년 연속 금상을 수상했다. 이 밖에도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당시 공식 먹는샘물로 지정되며 브랜드 신뢰성과 상징성을 입증한 바 있다.

/신원선 기자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CYBER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언어를 배우다 커리어가 되다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신·편입생 모집

모집일정 | 1차: 12. 1(월) ~ 2026. 1. 15(목) / 2차: 2026. 1. 28(수) ~ 2. 12(목)

모집학부 | 영어학부 중국어학부 일본어학부 한국어학부 스페인어학부 베트남·인도네시아학부
경영학부 산업안전·주택관리학부 상담심리학부 K뷰티학부

입학상담 | 전화 02-2173-2580 카카오톡 cufs



2022 개정교육과정 시행, 학생부 기재에 관해



지 상 범 역

입시 토크

대한민국 교육 현장은 지금 거대한 지각 변동의 한가운데 서 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도입,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그리고 내신 5등급제를 골자로 한 2028 대입 개편안은 학교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다. 특히 내신 1등급 비율이 기존 4%에서 10%로 확대됨에 따라 정량적 변별력은 필연적으로 약화됐고, 이에 학생의 학업 역량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 그중에서도 교사가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무게감은 전례 없이 막중해졌다. 바야흐로 숫자로 줄 세우던 ‘성적표의 시대’가 저물고, 행간의 의미를 읽어내는 ‘기록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적 이상과 학교 현장의 행정적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위태로운 괴리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학생부는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담은 교육적 기록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한 ‘스펙 나열장’이자, 교사의 주관적 재량권이 무소불위로 휘두러지는 ‘불공정의 공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작성 주체인 교사의 역량과 태도 차이에 따른 ‘기재 불평등’이다. 어떤 교사는 최신 학술 동향과 학생의 탐구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한 편의 성장 드라마를 완성해 주지만, 어떤 교사는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기계적으로 복사해 붙여넣는 이른바 ‘복붙’으로 일관한다. 학생의 잠재력이 아니라, ‘누구를 담임과 교과 교사로 만나느냐’에 따라 입시의 유불리가 결정되는 ‘교사 복붙’ 현상은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주범이다.

행정적 절차의 모순 또한 심각하다. 학사 일정은 엄연히 2월까지 이어지지만, 교원 인사 이동과 새 학년 준비라는 행정 편의 주의 때문에 대다수 일선 고교는 겨울방학 전인 12월 말에 학생부 작성을 사실상 마감한다. 이로 인해 1월과 2월의 교육 활동은 기록에서 증발하고, 교사들은 방학 직전 시간에 쫓기며 수백 명의 기록을 줄속으로 채워 넣는다.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학생은 철저히 배제된다. 학생부는 학생 본인의 삶을 기록한 공문서임에도, 학년이

마감되고 나이스(NEIS)를 통해 통보받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알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 평가의 핵심인 피드백과 성찰 과정이 생략된 채, 오직 결과론적인 텍스트만 남는 셈이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인 ‘학생 주도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기록 시스템의 행정적 혁신이 필수적이다. 교사 개인의 문장력에 의존하는 방식을 넘어, AI 기반 기재 지원 시스템을 도입해 행정 업무를 경감하고 기재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단, AI가 만들어낸 편편일률적인 기록이 학생의 개성을 지우지 않도록 교사의 검수(Human-in-the-loop) 과정을 의무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평가 역량 강화가 절실하다. 화려한 미사여구로 포장된 ‘잘 쓰인 소설’과 투박하더라도 학생의 치열한 고민이 담긴 ‘진실된 다큐멘터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고도화된 평가 안목 없이는 고교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없다. 행정적 투명성과 평가의 전문성이 담보될 때, 비로소 학교생활기록부는 입시의 도구를 넘어 진정한 교육의 기록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JBS전진전략연구소장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 우리는 무엇으로 설득할 수 있나



기지 수첩

유 혜 온
(산업부)

방산 수출의 승부처는 더 이상 무기 성능만이 아니다. 이제 결과를 가르는 건 누가 상대국 정부를 더 설득할 수 있는 ‘제안의 구조’를 갖췄느냐다.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캐나다 잠수함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G2G 협력안, 이른바 ‘산업협력 패키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산 수출에서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공식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는 분명하다. 다만 현장에선 “방향은 맞지만 아직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경쟁 구도는 녹록치 않다. 독일은 이미 EU 차원의 유로 기금을 활용해 전방

위적인 산업협력과 로비를 캐나다 정부에 제안하고 있다. 반면 우리는 로비가 불법이고, EU처럼 동원할 수 있는 대규모 공적 자금도 없다. 업계에서 “결과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알겠지만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산업협력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실질은 상대국 정부와 산업 생태계를 동시에 끌어당기는 종합 제안이다. 이 영역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카드의 종류와 규모가 상대적으로 얇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아이러니한 대목은 한국 잠수함 기술의 뿌리가 독일에 있다는 점이다. ‘원조’ 기술력에 더해 독일은 합법적인 로비와 대규모 산업협력 카드까지 쥐고 있다. EU 자금만 해도 100조원을 넘는다는 얘기가 오가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독일보다 더 매력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또한 ‘워팀’을 강조한 정부 발표와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실무 협의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구호와 체감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물론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화에어 로스페이스는 과거 호주 AS21 ‘레드백’ 잠수함 수주전에서 독일 라인메탈을 제쳤다. 가격과 성능 경쟁력에 더해 본계약 과정에서 “호주에 공급하는 무기를 호주산 철광석으로 만들겠다”는 파격적인 산업협력 제안을 내놓으며 줄어든 물량을 다시 늘린 사례다. 상대 정부가 무엇에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읽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결과다.

캐나다 잠수함 수주전은 단일 사업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우리가 G2G 협력을 어떻게 설계하고 산업협력을 어디까지 전략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가 왜 움직이는지를 냉정하게 읽어내는 전략이다.

/dhaledhale@metroseoul.co.kr

오늘의 운세 1월 9일 (음 11월 21일) <http://www.saju4000.com>

취

36년생 노력에 따라 발전을 가져온다. 48년생 도박에 돈과 노력을 쏟는 건 무모하다. 60년생 운이 있으니 주식보다는 청약을. 72년생 주변에서 권하는 것들이 이름만 있고 실상은 없는 것. 84년생 슬픔도 고통도 자기 성장이다.



소

37년생 사촌과의 경쟁은 후회만 남게 되니 양보를 하자. 49년생 주변 감언이설에 넘어가지 않도록. 61년생 귀인의 도움으로 일이 성취된다. 73년생 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85년생 막연한 희망보다는 작더라도 실천을 해야.



호랑이

38년생 게으름 피우지 말고 일해야. 50년생 신세진 사람이 빛 갇혀 온다. 62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미뤄둔 일을 처리. 74년생 도무지 근거 없는 말들만 무성하다. 86년생 바쁘다고 서두르면 결과 없이 진행만 더디게 된다.



토끼

3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날이니 감사. 51년생 사랑 타령은 시간 낭비며 우울의 결과로. 63년생 신용으로 신뢰를 얻는 날. 75년생 뜻이 있으면 결국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87년생 현실에 만족하면 후회는 없으나 발전도 없다.



용

40년생 오후에 교통사고 유의를. 52년생 아직 계획은 보류하도록. 64년생 경력을 믿고 교만해야 부처님 손바닥처럼 얇은 수준이다. 76년생 세월이 지나고 보니 부모님 은혜가 태산같이 높다. 88년생 집 안 청소를 주변 환기를 해보자.



뱀

40년생 평소 겸손함으로 주변으로부터 신망을 얻는다. 52년생 바쁜 시간은 피해서 일을 보라. 64년생 대인관계에서 먼저주고 공과 사를 구별해야. 76년생 이상 문제로 시골시골. 88년생 직장에서 불평하기 전에 능력을 키우도록.



말

42년생 종이 절이 싫으면 종이 떠나야지 절이 옮겨갈 수는. 54년생 정신일도 하사 불성이면 못할 것이 없다. 66년생 일이 바빠서 서두르다 다친다. 78년생 위험한 일을 미리 조심해서 대비하자. 90년생 정오부터 교통안전에 유의를.



고양이

43년생 과도한 운동은 오히려 해롭다는데. 55년생 동료 간에 협조가 필요하니 왕따로 따돌리지 마라. 67년생 소자본 창업은 좀 더 꼼꼼하게. 79년생 사전에 준비가 되어 뒷걱정이 없다. 91년생 잔소리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만.



원숭이

44년생 이익을 챙기는 것이 좋으나 너무 계산하지 않도록. 56년생 태산을 넘으면 평지가 나오니 기다려라. 68년생 살부른 이익은 글썽해 된다. 80년생 바람과 밝은 달을 대하여 즐겁다. 92년생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여 돈 자랑 말라.



닭

45년생 과다한 투자는 삼가야. 57년생 말은 바 일을 열심히 해야만. 69년생 기척으로 발견되어서 외국어를 공부해야 하는 상황. 81년생 집을 설계하는데 마음이 맞아 고마운 일. 93년생 남과 비교되는 일은 사람 사는데 항상 있는 일.



돼지

46년생 머리가 복잡하니 매매 결정은 미루라. 58년생 배우자가 나의 조력자이니 감사. 70년생 비단옷을 입고 한밤중에 걸어 다니는 상황. 82년생 복권이 되려면 복권을 사야 하듯 일을 일단 시작해야 되던 안 되던. 94년생 매일 공부하자.



돼지

47년생 함치 변화가 있으니 외모에도 조금 신경 쓰도록. 59년생 한 걸음만 가면 행운이 온다. 71년생 기술 쪽 재능을 공부. 83년생 화합의 원앙지계(鴛鴦之契)도 양보에서. 95년생 삼재 팔관 관재구설이라 했으니 삼재 기도를 신청해보라.

김상회의四季

애국의 기준



필자의 월광사 오랜 신도로, 그는 출장이나 비행기를 경유하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의로는 일본이나 중국여행을 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 때 항일 독립운동으로 고초를 겪은 분들이 부지기수지만 유관순 열사가 3·1운동 후 끌려가 겪은 상상할 수 없는 모진 고문의 내용을 글에서 읽고는 여자로서 후대인인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세계의 중앙이라는 지나친 중화민족 자의식, 동방공정과 티베트에 대한 압제 등 이런저런 이유를 얘기한다. 그 신도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우리나라의 H사 차츰만 다섯 번에 걸쳐 바뀌었는데, 지금 차를 바꿔야 하는 시점에 가족들은 내구성과 연비성 등 장점을 내세우며 일제 차를 권했다.

과거 한국 주부들의 로망 가전제품에 해당했던 그 코끼리 밥솥도 안 샀었는데, 귀족노조로 변질한 노조를 생각하면 가족들 의견을 따라야 하나 고민이 된다는 것이다. 조금은 다른 차원이겠지만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 후에 변절한 유명인사들이 있다. 최남선 이광수 등 사회적 유명인사들이다. 일제로 변절한 뒤 매일신보 사장 및 일본 중추원 참의원까지 지낸 최린 역시 대표적 변절자에 속한다. 광복 후에 자신의 변절을 회개하긴 했으나 최린이란 인물은 또 다른 이유로 필자의 뇌리에 있는 사람이다. 근대 최초의 신여성 화가로 불리는 나혜석과의 인연이다. 그녀와 바람을 피운 장본인이지만 나혜석은 이 일로 세간의 온갖 비난은 물론 이혼까지 했고, 정신병원에서 쓸쓸한 최후를 맞이했으나 최린은 사회적으로 더욱 승승장구했다. 시대적 지성들일지라도 나라에 대해서도 배신, 남자의 사랑 변절은 단죄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인가 보다. 필자는 신도에게 일본차 사는 거, 실용적으로 생각하라고….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829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3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칸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마음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2	8				5
			4	3	5			
		1				2		8
8		5				6		4
2		7				1		
			7	9	6			
7				2	1			6

3		8		4				1	6
1					7				
				3					9
	9					7			
6									2
		7							8
5						9			
				2					3
9	4			5		1			8

9	8	9	1	2	8	6	7	2	1
6	8	1	7	9	8	9	2	1	
1	2	7	9	6	2	8	9	8	9
8	9	1	8	7	9	2	6	2	
7	2	9	2	1	6	9	8	8	
8	6	2	8	2	5	1	9	7	
2	1	6	9	8	7	2	8	9	
2	7	8	6	9	1	8	2	9	
9	9	8	2	8	2	7	1	6	

8	2	1	9	9	2	8	7	6	
8	6	9	7	8	2	9	1	2	
2	9	7	6	8	1	2	8	9	
7	8	9	1	6	9	2	1	8	
2	8	6	8	2	7	1	8	9	
1	9	2	8	2	9	7	6	8	
6	2	8	2	1	8	9	7		
9	7	8	2	9	8	6	2	1	
9	1	2	9	7	6	8	2	8	

샤블리의 계절... 단 하나의 품종으로 부리는 마법



안 상 미 기자의
Why, wine 307

술이 보이기 시작하면 와인 애호가들은 일제히 외친다. “샤블리의 계절이 왔다!”

‘샤블리’라는 말 자체가 좋은 화이트 와인의 대명사가 됐지만 의외로 접해보지 못한 이들도 많고, 제대로 아는 이는 더 드물다. 지난 연말 모임에서 한 지인은 ‘샤블리가 포도 품종인가?’라고 묻기도 했으니 말이다.

샤블리는 와인 산지를 일컫는 말이다. 프랑스 부르그뉴 지역에서 북쪽에 위치해 위도상으로 보면 와인을 생산할 수 있는 한계지점이다.

팩트만 모아 놓고 보면 샤블리는 지극히 단순하다. 동서 약 18km, 남북 약 16km에 불과한 작은 산지다. 품종은 단 하나 샤르도네. 100% 화이트 와인. 프랑스 와인을 알아갈 때 그 복잡함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원산지통제명칭(AOC)도 4개가 전부다.

부르그뉴 와인 인증 강사 이인순 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샤블리 와인 마스터클래스에서 “샤블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품종으로 다양한 최고의 화이트 와인을 만들어내고 있는 곳”이라며 “샤블리에서는 샤르도네가



샤블리 와인 미니 테이스팅에 소개된 8종의 와인과 이를 소개한 4명의 소믈리에. 왼쪽부터 윤효정 소믈리에, 김주용 소믈리에, 이형택 소믈리에, 양윤주 소믈리에.

과속 없이 독특하고 섬세한 균형을 이루고, 포도밭의 위치나 일조 방향 등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클래스는 ‘샤블리 와인을 가까이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후는 해양성과 대륙성 요소가 절묘하게 뒤섞여 특유의 미네랄을 담은 신선한 화이트 와인을 만든다. 이와 함께 토양은 굴 화석을 품은 키메리지와 석회암으로 이뤄진 포틀랜드양이다. 굴 화석의 미네랄을 담고 있으니 ‘샤블리 하면 굴’이라고 외치는 것도 사실 다 이유가 있었다.

4개의 AOC는 뽀띠 샤블리와 샤블리, 샤블리 프리미에 크뤼, 샤블리 그랑 크뤼다. 이 구분은 스타일의 차이일 뿐 와인 등급을 나눈 것이 아니다. 이걸 염두에 두어 더 폭넓고 좀 더 자유롭게 샤블리를 즐길 수 있다.

먼저 뽀띠 샤블리다. 한 마디로 경쾌하다.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마실 수 있고, 좋은 산도로 생기가 넘친다. 선보인 와인은 ‘도넬 알랭 에 시릴 고프랑’과 ‘도넬 알렉상드르’다. 모두 2023 빈티지다.

한국 소믈리에 대회 우승자 윤효정 소믈리에에 “국내에서는 굴을 가장 먼저 떠올리지만 샤블리 현지에서 교과서적인 페어링은 푸아그라”라며 “찬바람부는 김장철이라면 절인 배추와 굴, 버무린 김치 속과도 잘 어울리고, 모임에서 샴페인 등을 대신해 마시기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샤블리는 뽀띠 샤블리보다 산도도 조금 더 높고, 대부분 키메리지와 토양으로 바다 느낌의 미네랄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사실 어떤 음식과도 다 어울릴 와인이다. 맛깔나게 식초와 소금을 찼는데 맛 없을 음식이 없지 않은가.



샤블리 와인 마스터클래스에 소개된 8종의 와인.

/홀스코치 코리아

선보인 와인은 2023 빈티지로 ‘엘렌 씨 뿌아뚜’와 ‘앙뜨 MCMLXXX 샤블리 니콜’이다. 조개를 재료로 한 오일 파스타인 봉글레 파스타나 한국식으로 하면 조개 칼국수와 같이 마셔도 좋고, 짭짤한 느낌의 샤블리 와인이라면 조개구이에 딱일 맛이다. 샤블리에서 2023년은 샤도네이의 특성을 잘 나타내면서도 접근성이 좋은 빈티지로 꼽힌다.

이젠 샤블리에서도 세부 포도밭의 DNA를 느껴보는 여정이다. 이른바 ‘글리마’의 세계다. 샤블리 안에 47개의 글리마가 있는데 40개가 프리미에 크뤼다. 보통 레이블에 글리마가 나와 있다.

‘몽맹, 2023, 도넬 드 라 푸르’는 백도같이 단단한 과실향과 함께 미네랄이 확실히 느껴진다. 고트치나 참치 타다키, 방어 뱃살 부분과 잘 어울릴 와인

이다. ‘보지로, 2023, 도넬 데 토아 베’는 집종도가 좋아 생굴도 좋지만 익힌 굴튀김이나 굴전도 좋다. ‘롬 모르, 2023, 도넬 다니엘 세귀노 애 피유’는 잘 익은 열대과일 향과 풍부한 아로마로 메로같은 흰살 생선이나 새우버터구이는 물론 잡채나 인삼 허브향의 삼계탕과도 같이 마실 수 있다.

샤블리 그랑크뤼는 샤블리에서도 세랭 강 오른쪽 가파른 경사면에 위치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햇빛을 잘 받는다. DNA가 다른 글리마는 총 7개다.

‘발뤼르, 2022, 장 폴레 에 피스’는 산도와 미네랄, 구조감이 잘 어우러져 알차게 잘 만들어진 종합 선물세트 같은 와인이다. 생굴보다는 익힌 굴, 참치나 연어 같은 기름진 생선과 잘 어울릴 몸집으로 숙성 잠재력이 큰 와인이다.

/smahn1@metroseoul.co.kr

OTT 확산에 흔들린 영화관... ‘공간 전략’으로 돌파

관객 수 팬데믹 이전 절반 수준 멈춰
천만영화 실종·제작 감소로 본업 한계
스포츠·콘서트·체험형 콘텐츠로 확장
‘영화 상영’ 넘어 복합 경험 공간 변신

국내 영화관 산업이 구조적 침체의 늪에 빠졌다. 관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을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제작 편수 감소와 흥행작 쏠림 현상,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확산에 따른 관람행태 변화까지 겹치며 극장본업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찾기 어려운 환경이 됐다.

영화진흥위원회(KOFIC)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박스오피스 총관람객 수는 1억 548만명으로 집계됐다. 2022년 1억 1280만명, 2023년 1억 2513만명, 2024년 1억 2312만명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다가 지난해 다시 1억 명 초반으로 후퇴, 팬데믹 이전(연 2억 명대)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국내 박스오피스 1위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2’로, 누적 관객 수는 약 754만 명에 그쳤다. 코로나19 시기를 제외하고 천만 영화가 단 한 편도 나오지 않은 것은 2011년 이후 처음이다. 한 국영화 최고 성적을 기록한 영화는 ‘쥔



롯데시네마 아티스테이지 걸그룹 ‘지니어스’ 리스닝 파티 현장.

/롯데컬처웍스

비탈’로 563만 명을 동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5월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의 합병 논의는 업계 재편의 신호탄으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논의가 장기화되며 사실상 동력이 약해진 모습이다. 공정거래 이슈와 이해관계 조율, 시장 환경 변화 등이 맞물리면서 ‘빅딜’을 통한 구조조정보다는 각 사가 생존 전략을 개별적으로 모색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합병 논의가 주춤한 사이 영화관 업계

의 전략방향은 보다 명확해졌다. 핵심은 영화 상영 중심의 사업자에서 벗어나, 다양한 콘텐츠를 수용·유통하는 ‘공간사업자’로의 전환이다. 스크린 수와 좌석 점유율 경쟁이 아닌, 공간 활용도와 콘텐츠 확장성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영화관은 이미 대형 스크린과 음향 설비, 도심 핵심 입지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를 영화 외 콘텐츠로 확장하면 투자 대비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업계는 콘서트 실황, 스포

츠 중계, e스포츠, 공연·뮤지컬 영상, 애니메이션·IP 특별전 등 비(非)영화 콘텐츠 비중을 점차 늘리고 있다.

CGV는 지난해 ‘2025 KBO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스크린X 라이브로 생중계했다. 평균 객석률 80%를 돌파했다. 양 옆으로 확장된 화면과 현장감을 앞세운 ‘극장 직관’ 경험을 제시하며 새로운 야구 응원 문화로 자리잡았다. 국내 e스포츠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 ‘LoL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 생중계 역시 팬들의 응원 문화와 결합된 색다른 관람 경험으로 주목받았다. 음악 콘텐츠에서는 아티스트 다큐멘터리, 콘서트 실황, 라이브 뷰잉, 청음회 등 다양한 포맷을 시도했다.

롯데컬처웍스는 지난해 하반기 영화와 공연을 융합한 체험형 콘텐츠 ‘사룟 데 더 플레이’를 롯데시네마 신도림에 처음 선보였다. 영화관 스크린에서 송출되는 영상과 눈앞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가 어우러지며 몰입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영화와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린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 속에서 관객은 단순히 ‘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야기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주인공으로 거듭나 새로운 자극을 경험하게 된다.

앞서 체험형 전시공간 ‘랜덤스퀘어’, 서브컬처 복합문화공간 ‘브이스퀘어’, 물플레이 체험 공간 ‘라이브시네마’를 통해 영화관 인프라를 활용한 관객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인 바 있다.

그리고 김종열 전 CJ 4DPLEX 대표이사를 영입하며 사업 전략을 재정비했다. 영화 상영을 대신할 신성장동력으로 콘텐츠 개발과 IP 경쟁력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드라마 제작사 에이스토리와 원천 IP 개발 및 콘텐츠 발굴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메가박스도 공연 실황, 콘서트 라이브 뷰잉, VR 콘서트 등 극장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맞춤형 시설을 늘리고 있다. 이처럼 일부 상영관은 강연, 북토크, 기업 행사, 프라이빗 상영 등 대관 중심으로 운영되며 ‘멀티 유즈(Multi-use) 공간’ 성격을 강화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영화관 단독의 생존 전략을 넘어, 콘텐츠 산업 전반과의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OTT가 개인화된 시청 경험을 제공한다면, 극장은 집단적·현장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혼자 보는 콘텐츠’가 아닌 ‘함께 소비하는 경험’에 방점을 찍는 것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트럼프, ‘다음 타깃 지목’ 콜롬비아 대통령과 통화... “정상 회담 추진”
▲베네수엘라 정부 “美 공격에 민간인 등 사망자 100명”
/사진 뉴시스

▲중국방부 “日, 핵 보유 선동 중... 군국주의 부활 막아야”
▲日 “中, 동중국해에서 가스전 굴착선 활동 확인... 항의”

▲젤렌스키 “종전 협상 새 이정표... 올 상반기 내 종전 기대”
▲미 ICE요원, 트럼프 지시로 미니애폴리스 이민 단속 여성운전자 사살



백화점
설 선물세트 예판
할인·맞춤 차별화
L1



Life

국내 바이오
ADC 등 기술수출
마일스톤 수령
L2



AI 흐름 속 금융 대전환… IB로 체질 바꾸고 사업경계 넓힌다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KB 금융그룹

KB금융그룹은 올해 경영전략으로 '전환과 확장'을 제시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AI라는 큰 파도는 금융시장의 판을 바꿀 것”이라며 “KB의 강점과 기반은 확실히 지키면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사업방식을 전환하고, 그동안 집중하지 못했던 고객과 시장까지 우리의 시야와 사업의 경계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

/KB금융

◆AI로 구현한 디지털 시무식…패러다임 변화를 기회로

KB금융은 2026년을 여는 시무식을 대면이 아닌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했다. 양 회장은 AI 영상으로 재현됐고, 임직원들은 각자의 근무여건에 맞춰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자유롭게 행사에 참여했다.

AI 등 기술뿐 아니라 국가사회적으로도 금융산업은 패러다임의 전환기다. 생산적 금융을 통해 경제의 성장 동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본연의 역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 금융으로 취약계층을 지키는 방과제로서도 작동해야 한다.

양종희 회장, 올해 경영전략 제시 금융 패러다임 변화, 성장 기회로 유스·시니어 등 전략 고객군 확대 디지털자산·AI비즈니스 사업 확보

양 회장은 “생산적 금융 등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를 전략적인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사업성 평가 역량과 정교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머니무브(Money Move)로 흔들리는 이익 기반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문과 상담 중심의 영업을 통해 종합적인 자산·부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자본 효율적 IB 비즈니스로 체질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국민 누구나 KB의 금융서비스를 누리는 포용금융을 본연의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단순한 규제 준수가 아닌 모든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B 금융 영토 확장…핵심은 신뢰 고객과 시장은 확장한다.

양 회장은 “유스(Youth)와 시니어, 중소법인, 고자산가 등 그동안 놓쳤던 전략 고객군에 대한 그룹의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야 한다”며 “새롭게 형성되는 디지털 자산, AI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우리가 먼저 고객과 사업기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베디드 금융으로 고객 기반을 확장함과 동시에 올해부터 바뀌는 영업점 운영모형을 바탕으로 현장의 직원들은 보다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며 “글로벌 선도사와 제휴 및 투자로 사업 영역과 고객 네트워크를 넓혀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다만 모든 전환과 확장 전략은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정보보호, 사회적 가치(ESG)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회장은 “금융의 핵심은 신뢰”라며 “KB는 가장 안전하게 내 정보와 자산을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 최적의 상품과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균형 있게 키워줄 것이라는 믿음을 고객과 시장에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경영전략과 디지털 혁신 융합

조직개편은 경쟁의 판이 바뀌는 금융 대전환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먼저 디지털 AI 환경에서 금융회사 신뢰의 핵심기반인 정보보호 조직을 대

‘금융 대전환’ 시대 KB금융 조직개편 4대 방향

고객신뢰·보호체계 강화

정보보호 조직을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관
사이버보안센터 신설, 사이버침해 대응역량 강화

생산적·포용적 금융 전환

CIB마켓부문 신설 및 성장금융·포용금융
조직 강화를 통해 생산적 금융 실행력 제고

미래전략·디지털혁신 융합

전략·ESG와 AI·디지털혁신 기능 통합
그룹 차원 통합전략수립 및 실행체계 구축

고객중심 시너지·가치 극대화

WM·SME부문 신설을 통해 종합 자산관리·
연금서비스 및 중소기업 대상 통합솔루션 제공 추진

폭 강화했다. 지주 정보보호부를 기존 IT부문에서 준법감시인 산하로 이동하고, 본부장급 전문가를 배치했다. 정보보호를 단순한 IT기술 이슈가 아닌 그룹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과제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금융그룹 최초 사이버보안센터 출범 정보보안기술 연구, 사이버침해 대응 CIB마켓 신설, 생산적 금융 활성화 디지털 통합 미래전략 수립체계 구축

이미 지난 5일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가 공식 출범했다. 최고 및 최선의 정보보안 기술을 연구하고 그룹 전체의 사이버 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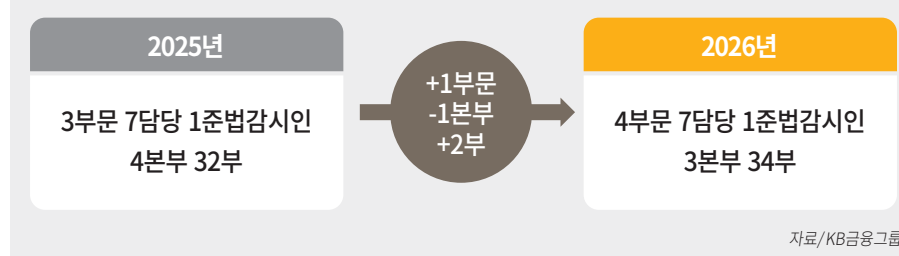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그룹의 컨트를 타워로는 CIB(기업투자금융)마켓 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CIB와 자본시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그룹의 투자·운용 비즈니스 경쟁력을 강화한다.

핵심계열사인 은행은 생산적 금융 지원 조직인 성장금융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여신 관리·심사 조직을 재편해 생산적 금융의 실행력을 한층 강화한다. 앞서 KB금융은 지난해 7월 포용금융 전담부서를 선제적으로 신설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래전략부문을 새로 만들었다. 그룹의 전략·시너지·ESG를 담당하는 ‘전략담당’과 AI·데이터·디지털혁신을 담당하는 ‘AI·DT추진본부’를 통합한다. 그룹의 AI 전환(Transformation)을 본격화하고, 디지털 자산 등 새롭게 형성되는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 대면과 디지털 채널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전략수립 및 실행체계를 구축한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KB금융지주 조직개편 현황



자료/KB금융그룹



지난 5일 KB국민은행 서울 여의도전산센터 동관에서 진행된 ‘그룹 사이버보안센터’ 현판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메트로 한줄뉴스



▲허구연 KBO 총재 신년사 “한국 야구, 시작·유지 넘어 한 단계 도약”
▲SSG, 경원호 코치 투수 총괄로 선임…“육성·관리 체계 강화”
/사진 뉴시스

▲이란과 비긴 이민성 U-23 축구 감독 “레바논, 반드시 잡겠다”
▲맨체스터 시티 홀란드, ‘EPL 통산 3만5000호 골’ 달성

▲“한국에서 군대도 나왔다”…차오루, 김혜경 여사와 깜짝 만남
▲‘영웅’ 이순신도 흔들리고 고민했다…국종박 강연회 ‘인간 이순신’